月刊 등불

www.tongdosa.or.kr

월간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지입니다.

TONGDOSA
영축총림 통도사

JANUARY 2016
Monthly Magazine vol. 410

글. 사진
통도사 성보박물관

십이지번 "원숭이"
十二支幡 "申"

면/ 세로 121.5cm 가로 68cm

이 그림은 육십 갑자의 아래 단위를 이루는 12마리의 동물 중 원숭이를 그린 번幡으로, 면 바탕 위에 채색하였다. 번은 도량장엄의 하나로서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잡귀의 침범을 막는 벽사闢邪의 의미로 12방위方位에 걸었던 것으로, 이 그림은 원숭이의 얼굴에 사람의 신체로 묘사하였다.

원숭이는 고개를 살짝 틀어 왼쪽을 향하고 있는데 반해, 몸은 오른쪽을 향하여 왼발을 힘차게 딛고 있다. 왼손은 굵게 주먹 쥐어 막대기를 단단히 잡고, 오른손과 오른발은 들어 올려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노란색 스카프에 백색 바지, 녹색의 상·하의, 호피무늬의 요의腰衣를 착용하고 적색 끈으로 매듭지었으며, 청색과 적색의 양면 천의天衣가 머리 위로 둥글게 둘러져 아래로 내려와 화려함을 더한다.

이 번은 본래 관직과 벼슬을 상징하는 길상체인 원숭이에 단호한 표정과 자세를 더하여 벽사辟邪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번지 TEL. 055-382-1001 FAX. 055-384-0030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화엄의 세계

해마다 동짓달이 되면
통도사는 어김없이 구법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화엄산림 기간

입재 | 2015. 12. 11(금) ~

회향 | 2016. 01. 09(토) 30일간

장소 | 통도사 설법전

동참금

영 가 동참비 : 1위당 2만원
온산림 동참금 : 20만원
반산림 동참금 : 10만원

교통편

부산지역 온천장 지하철역 1번 출구 앞(08:00~09:00)
울산지역 울산공설운동장(07:30) → 학성공원(07:35) → 태화R(07:40)
→ 구방송국 (07:55) → 공업탑R(08:10) → 법원앞(08:15)
→ 무거R(08:25) → 통도사
대중교통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통도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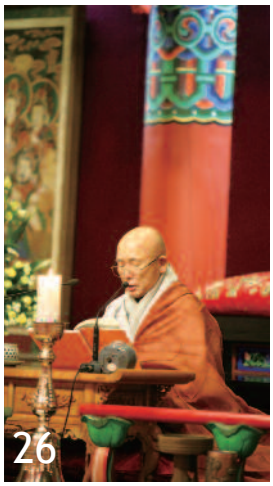
종무소 Tel. 055)382-7182 기도접수처 Tel. 055) 381-1288
Fax. 055-372-7010 www.tongdosa.or.kr

영축총림 통도사

불기2559(2015)년 화엄산림대법회 법사 일정표

입재법문 / 화엄경 현담	12.11 (음.11/1) 금	원명지종스님(통도사 방장) / 우진스님(전) 통도사 강주
세주묘엄품	12.12 (음.11/2) 토	혜남스님(통도사 율주)
여래현상품 / 보현삼매품	12.13 (음.11/3) 일	자광스님((전) 직지사주지)
세계성취품	12.14 (음.11/4) 월	성우스님(전계대화상, 불교BTN사장)
화장세계품	12.15 (음.11/5) 화	보선스님(대흥사 회주)
비로자나품	12.16 (음.11/6) 수	경성스님(해인사 율주)
여래명호품 / 사성제품	12.17 (음.11/7) 목	덕민스님(불국사 학장)
광명각품 / 보살문명품	12.18 (음.11/8) 금	수진스님(동명대석좌교수, 해인정사 주지)
정행품 / 현수품	12.19 (음.11/9) 토	도업스님(동국대 명예 교수)
승수미정상품 / 수미정상게찬품	12.20 (음.11/10) 일	현해스님(원로스님 월정사 회주)
오전) 월하스님 다례 / 십주품	12.21 (음.11/11) 월	중선스님(수도암 감원)
범행품	12.22 (음.11/12) 화	법산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초발심공덕품 / 명법품	12.23 (음.11/13) 수	정인스님(승가대 교수)
불승야마천궁품 / 야마천궁게찬품	12.24 (음.11/14) 목	심산스님(홍법사 주지)
십행품 / 십무진장품	12.25 (음.11/15) 금	혜인스님(은해사, 약천사 회주)
승도솔천궁품 / 도솔천궁게찬품	12.26 (음.11/16) 토	도일스님((전) 송광사 율원장)
십회향품 1-5	12.27 (음.11/17) 일	보광스님((전) 해인사강주, 주지)
십회향품 6-10	12.28 (음.11/18) 월	혜거스님(금강선원 선원장)
십지품	12.29 (음.11/19) 화	각성스님((전) 통도사 강주)
십정품	12.30 (음.11/20) 수	정우스님((전) 통도사 주지, 군종교구장)
십정십통품 / 십인품	12.31 (음.11/21) 목	현진스님(통도사 강주)
아승지품 / 여래수량품	2016.1.1 (음.11/22) 금	시명스님((전) 해인사 통도사 교무 포교국장)
제보살주처품 / 불사부의법품	1.2 (음.11/23) 토	원학스님((전) 봉은사 주지)
여래십신상해품 / 여래수호공덕품	1.3 (음.11/24) 일	월파스님(원로의원, 문수사주지)
오전) 벽안스님 다례 / 보행현품	1.4 (음.11/25) 월	법선스님(옥련암감원)
여래출현품	1.5 (음.11/26) 화	화랑스님(동명불원 주지)
이세간품	1.6 (음.11/27) 수	신공스님(창원구룡사 주지)
입법계품(휴사우바니까지)	1.7 (음.11/28) 목	종광스님((전) 기림사 주지)
입법계품(비목구사~바산바연주야신)	1.8 (음.11/29) 금	상우스님(취운암감원, (전) 부방장)
입법계품 / 회향법문	1.9 (음.11/30) 토	영배스님(통도사 주지)

목차



02 **통도사 성보**
십이지번 "원숭이"

08 **휘호**
瑞氣滿堂 生壽祥(서기만당 생수상)

09 **신년사**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10 **선어록 강좌**
조주선사가 암주를 점검하다.

14 **마음으로 읽는 불교문화**
성보문화재에 대한 단상

16 **특집** _ 새롭게 읽는 삼국유사
알영, 잊혀진 신라의 첫 여왕

20 **종립학교, 그 캠퍼스를 찾아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금산중 • 고등학교를 찾아가다

24 **향성**
甘露茶

26 **등불화보**
불기 2559년 동안거 첫 번째 포살법회 봉행
삼삼조사추모재 극락암 삼삼전서 여법히 모시다
불기 2559년 화엄산림법회 그 입재의 현장
12월 11일 신축 보광선원 상량식 봉행
월하대종사 제12주기 다례재 및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봉행
통도사 동지 맞아 팥죽 공양 • 새해 달력 보시
2015 통도사 신행단체 및 불교대학 송년의 밤

33 **산문 밖 이야기**
한 해의 시작, 1월의 이야기 '어머니'

41 **그림으로 본 부처님**
자모관세음보살

42 **사찰 속 공양간을 가다**
동국제일선원 내원사의 공양간 속으로

48 **새롭게 조명한 인도불교사**
인도 불교의 역사 _인도사상의 특징과 흐름

54 **등불의 세계여행**
작은 부처의 나라, 라오스를 가다

55

68

59 **경전 산책**
재가 계율의 보고寶庫 -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62 **영축환경칼럼**
파리협약과 신 기후체계

66 **말사 탐방**
신덕산 수도사를 찾아가다

70 **산하기관_** 유치원소식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신나는 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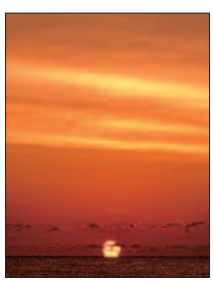
72 **원상스님이 들려주는 '이 공양'**
한 해의 살림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김장입니다

74 **건강칼럼**
추운 겨울철에 관절과 혈압에 좋은 '겨우살이'

76 **영축소식**
통도사 / 박물관

78 **신행수기**
초짜 종무원의 사찰입문

82 **편집후기**



빛으로 소리로 장엄합니다.
법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바른 광명입니다.
총림의 위용이 서광으로
빛나는 원단입니다.

월간 등불 1990년 9월 28일 등록. 2016년 1월 6일 발행(통권410호)
발행인 겸 편집인 향전 영배
편집주간 도문
편집장 선본
편집위원 진각 정안 진응 정진
회계 안은경
발행처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 384-8380 팩스 055) 382-7196
취재 · 사진 김윤희 김정은
기획 ·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18 동광빌딩 2F
전화 051) 255-0263 팩스 051) 255-0953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통도사 신도님들께 매월 배달되는 영축총림의 사보입니다.

瑞氣滿堂 生壽祥 (서기만당 생수상)

서기가 집안에 가득하고 수복과 상서가 인다.

글
향전 영배 통도사 주지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영축산 영봉에 상서로운 새 아침의 햇살이 빛나며 천고의 지혜를 머금은 부처님 사리탑에 그윽한 서기瑞氣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우리 불자들의 마음마다 이 길상吉祥의 기운이 충만하여 희망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고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기를 적멸보궁 사리탑전에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1700여 년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지종가 국지대찰로서 민족 문화의 찬란한 꽃밭이요, 지혜의 보궁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순간 선원·강원·율원 등에는 300 여 대중이 동안거 정진에 들고, 설법전에는 화엄경 산림 대법회가 열려 매일 3000여 불자들이 해인삼매의 바다에 들어 세파에 시들은 근심과 고뇌를 씻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가사의 크신 지혜로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가지가지 방편의 큰 힘으로써 그들의 한량없는 고통 멸하네.

부처님은 자재로이 세간에 나타나시어
일체 모든 생명을 교화하시며
널리 법문을 베푸시고 깨달음에 들어
모두 다 반드시 위없는 지혜를 성취케 하시네.

-『화엄경』 세주묘엄품 -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돈독한 신심으로 염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감응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마음 깊이 새겨 실천하여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성취되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참된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 2560년 병신년 새해 아침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합장

글
법산 통도사 선덕, 동국대 불교대학 명예교수

禪語錄

조주선사가 암주를 점검하다.

州勘庵主 (無門關 第 11 則)

趙州到一庵主處問 有麼有麼? 主豎起拳頭 州云 水淺不是泊舡處 便行. 又到一庵主處 云 有麼有麼? 主亦豎起拳頭 州云 能縱能奪 能殺能活 便作禮.

無門曰

一般豎起拳頭 爲甚麼肯一箇 不肯一箇. 且道, 誵訛在甚處. 若向者裡下得 一轉語 便見趙州舌頭無骨 扶起放倒 得大自在. 雖然如是 爭奈趙州卻被二庵主勘破. 若道二庵主 有優劣 未具參學眼 若道無優劣 亦未具參學眼.

頌 曰

眼流星 機掣電 殺人刀 活人劍.

번역

조주선사가 한 암주를 찾아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 암주가 주먹을 번쩍 들었다.
조주선사가 말하기를 "물이 얕아서 배를 세울 곳이 못 된다"고 하면서 돌아갔다.
또 다른 암주를 찾아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니,
그 암주도 역시 주먹을 번쩍 들었다.
조주선사가 말하기를 "능히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기도 하네" 하며 바로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무문이 논평하였다.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주먹을 번쩍 들었는데 왜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은 부정했을까? 얼른 말해 보라.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 여기에서 바로 알아차리고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면 즉각 조주선사의 자유자재한 법문을 알아채어 반야의 지혜를 확! 들어내고(扶起) 근본 번뇌를 싹! 쓸어버리는(放倒) 자유자재를 얻으리라.
비록 그렇기는 하나 어찌할거나 조주가 도리어 두 암주에게 점검勘破당한 것은 아닐까?
만약 두 암주에 우열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참선 수행자로서의 안목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만일 우열이 없다고 해도 역시 참선 수행자의 안목이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없다.

게송으로 노래하다

눈빛은 흐르는 별과 같고, 판단은 번개 불과 같아서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린다.

해설

조주스님이 암자에서 참선 수행하는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다.
조주스님이 행각에 나선 것은 자기 점검과 수행자들의 점검, 두 가지 의미로 보인다. '계십니까, 계십니까?'하고 주인을 찾은 것은 단순히 집 주인을 찾은 것이 아니고 진성의 주인공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 암자에서 참선 수행을 하던 스님이 주먹을 쑥 내어 보인 것은 그 스님 역시 조주스님의 심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기禪機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물이 얕아서 배를 세울 곳이 못 된다'고 한 것은 아직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일 것이다.

또 다른 암자에 가서 똑같이 주인을 찾았는데 역시 주먹을 내어 보인 행위는 똑같았다. 그런데 '주고 뺏고 살리고 죽이고 함'에 걸림이 없어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자유자재한 경계라고 크게 칭찬하였다.

왜 이렇게 똑 같은 행위를 보고 부정과 긍정으로 엇갈린 표현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 화두다. 과연 조주선사의 견처見處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두 암주가 번쩍 들은 주먹을 보고 하나는 얕은 물이라 평가하여 수행자의 안목이 없다고 하며, 다른 하나는 살활자재殺活自在하여 해탈의 경지를 인정한 평가인데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참구하여 확! 깨뜨려 버려야 한다.

무문선사는 논평문에서 이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한 조주선사의 지혜로운 견처를 알아차리면 즉각 번뇌 망상을 싹! 쓸어버리고 어떤 경계에도 걸릴 것이 없으며, 반야의 밝은 지혜가 확! 드러나서 어떤 상황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대장부의 대 자유를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칫 조주선사가 오히려 두 암주에게 점검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은 어디에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단단히 점검하여 참구하라는 독려이다.

게송에서 지혜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세상의 형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번갯불 같이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끊어 없애야 할 번뇌는 단칼에 날려버리고 살려내어야 할 반야의 근본 지혜는 단번에 확! 드러내어 죽여 없앨 것은 빨리 없애버리고 살릴 것은 즉각 살리는 기지를 발휘하라는 독려이다.

2016년 0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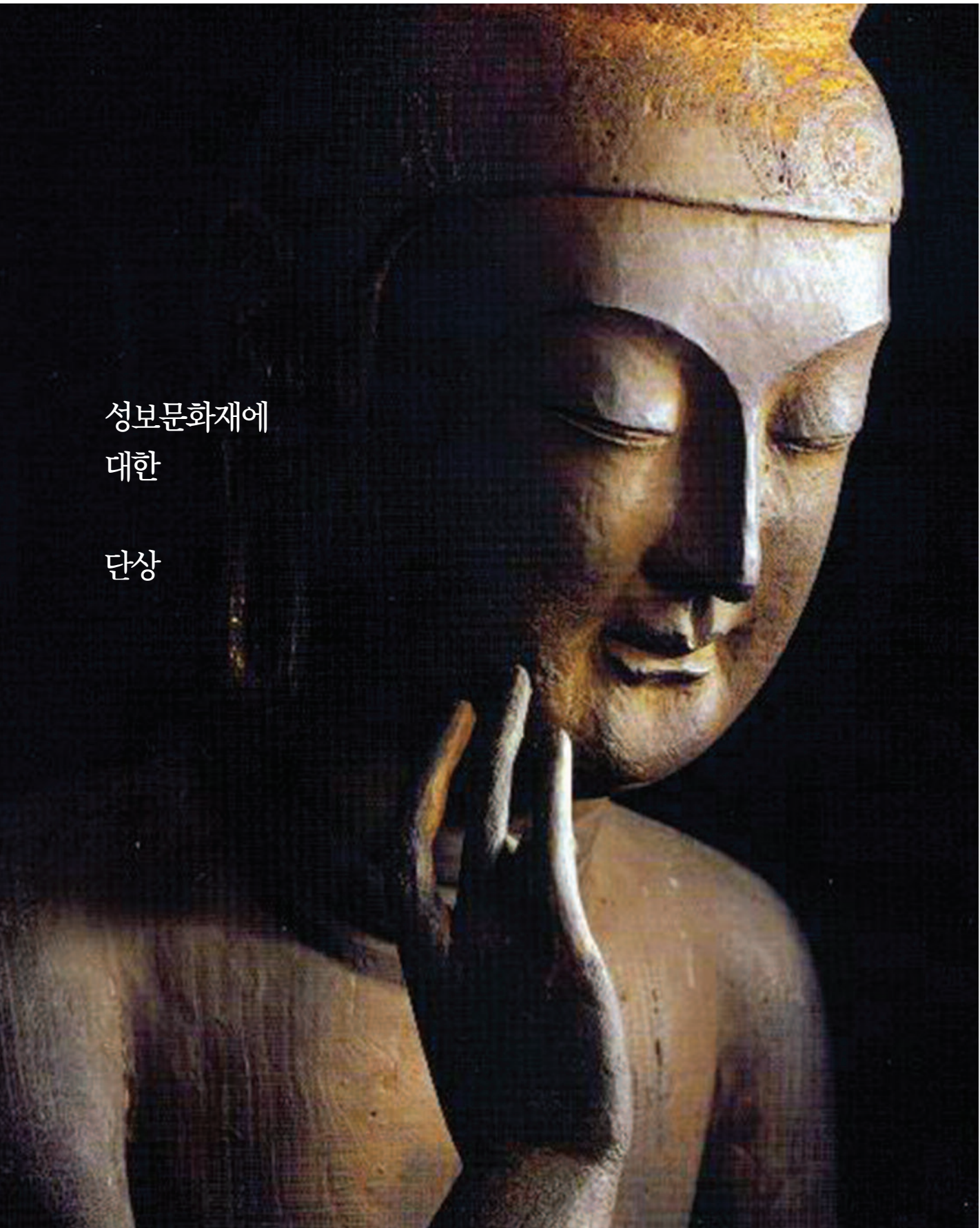
통도사 홈페이지 새단장

www.tongdosa.or.kr

2016년 01월
통도사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이제 모바일과 테블릿에서도
통도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TONGDOSA

글
도일스님 전. 송광사 율원장



성보문화재에 대한 단상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이다.
세계의 미술평론가와 철학자들이 이 목조 미륵상의 미소에 감탄을 금치못하고 일본 역시 국가의 자부심으로까지 생각하는 불교문화재인 것이다.
이 조각상이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정설은 없다. 우리나라에도 이 목조미륵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있다.
일본의 미륵상보다도 더 날렵한 몸매에 지적으로 느껴지는 미소가 아름다운 상이다.
이 두 보살상은 앉은 모습과 미소가 불교 특유의 관조를 통한 법열을 느끼는 대표적인 모습인데 세계적으로 일본의 목조상이 더 유명하다.

도일 스님

1973년 양산 미타암에 입산, 1975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7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지난 동안거까지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을 지낸 스님은 통도사 취운선원, 부산 보광사 등에서 운수납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은 4월3일부터 매월 음력 15일마다 부산 당리동 관음사에서 정토 법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본의 목조상은 왜 유명할까?

물론 조각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였고 국민들의 성심어린 마음도 한 몫을 했다 할 수 있다.

성보문화재란 종교적 의미가 깃든 문화재를 지칭한다. 따라서 그 문화재가 어디에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모셔져 있는 교토의 광륭사를 가보라. 법당에 봉안되어 있는 미륵상은 참배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

작품의 뛰어남을 말할 필요 없고 그것에 더하여 모셔져있는 미륵상에 대한 더 할수 없는 엄숙성이 값어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한켠에서 쓸쓸히 조명을 받으며 앉아있다. 미륵상에 오랫동안 향화香火가 끊기고 예배를 하는 사람도 없다. 단지 하나의 역사의 유물에 불과한 것이다.

성보문화재가 성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성보가 성보답게 존재할 때 그 가치는 빛나는 것이다.

일본 광륭사에 모셔진 목조미륵상 앞에는 지금도 향화가 끊이지 않고 방문객은 조심스런 태도로 참배하고 있다.

두 나라를 대표하는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지만 그 받드는 지성은 실로 큰 차이가 있다. 세상에는 형태가 주는 아름다움보다도 신심 가득한 정성이 더 고귀한 것이다.

일본의 목조미륵상에 보내는 세계인의 찬사 속에서 그러한 경건함이 자신들도 모르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금동미륵상은 봉안되었다는 사찰을 알 수가 없고 세상에 유전된지 오래되어 일본의 목조미륵상처럼 될 수는 없지만 가끔 어떤 그리움 때문에 금동미륵상을 찾을 때면 견딜 수 없는 외로운 마음에 가슴이 시려진다.

- '마음으로 읽는 불교문화'는 불자들에게 불교문화예술의 안목을 높여 줄 좋은 기회가 될 연재글입니다. 신설되는 코너로 전 송광사 율원장 도일스님께서 연재를 맡아 주십니다. -

글
정진원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알영,
잊혀진 신라의 첫 여왕

신라시조 박혁거세와 함께 동등한 성군으로 추앙받다

우리는 박혁거세는 알아도 알영은 잘 모른다. 어디 알영뿐이랴. 모든 시조의 부인은 우리 관심 밖이다. 그러나 알영은 박혁거세와 동등한 지위의 탄생설화와 신라 건국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당당히 해냈던 신라시조 이성二聖의 한 사람이다. 여왕의 나라라 일컬어지던 신라는 알영이 있었기에 선덕여왕을 위시한 진덕, 진성이 그 뒤를 이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뿌리란 이토록 깊은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알영의 탄생 설화도 삼국유사 곳곳에 전한다. 서술성모, 선도산 성모로 불리는 시조모로부터 박혁거세와 알영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감통편 '선도성모 수희불사' 조에 실려 있다.
'계림'이라는 나라 이름도 알영의 탄생과 관계가 있다. 나라 이름을 정한 것이 '왕'이 계정鷄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 하였다. '계룡이 상서를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계룡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난 알영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 사관의 학자들은 박혁거세가 태어난 나정蘿井을 잘못 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계룡에 대한 이같은 구체적 부연설명으로 지극히 견강부회한 생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 뒤 이어지는 분명한 '왕'이라는 표현까지 주목하면 알영은 그저 왕비가 아니라 왕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제 그 스토리를 삼국유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자.

아이영, 아영이라고도 불리던 계룡의 딸이 태어난 곳은 사량리 알영정 가이다. 나중에 사량리와 모량리로 대표되는 지역의 첫 등장이 알영인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측의 혁혁한 성과에도 모량리 출신이어서 승직을 받지 못했다는 후일담은 유명하다. 그곳 사량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겨드랑이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가 기원전 69년의 일이다. 심지어 삼국사기에서는 석가모니의 출생과 같은 우협右脅으로 알영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불교가 전래한 다음에 신성화시킨 윤색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무리인 것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도 서기 42년에 16나한이 살만한 터 신답평에 수도를 정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처럼 불교 전래의 역사는 우리가 줄곧 외웠던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이 아닌 서기 전후로 올라갈 수 있는 전거들이 삼국유사에는 도처에 가득하다.

또 하나의 이설로 용이 죽어 배를 갈랐더니 알영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어쨌든 그렇게 물을 상징하는 용과 석가모니 탄생을 결합한 알영의 출현에도 '모습과 얼굴이 유달리 고왔으나(姿容殊麗)' 입술은 닭의 부리(脣似雞觜)처럼 생긴 것이 옥의 티가 있

었다. 그러나 월성 북천에 목욕했더니 부리가 떨어져 나가 그때부터 북천은 발천撥川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곳이 있었다니 경주 사람들은 알까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면 어떨까. 모두 씻기만 하면 원하는 모습이 되는 자연 성형외과의 원천이 지금도 경주시내를 유유히 흐르고 있다.

남산 서쪽 기슭 창림사터에 궁실을 짓고 박혁거세와 함께 자란 알영, 태어난 우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알영, 아리영, 아영 등 '아'로 시작되는 이명이 더 많은데 신기한 것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딸의 이름은 '아로', 아들 남해차차웅의 부인은 '아루', 탈해왕의 부인은 '아로, 아니, 아효' 등으로 '아'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혁거세의 찬모격인 해척海尺의 이름도 '아진의선'이다. 그러고 보니 김유신의 누이 이름도 보희, 문희와 함께 '아해, 아지'로도 불린다. 뿐이랴.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름들이다. 따라서 신라 여시조의 이름이 후대 이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볼 수 있다. '아'에 담긴 다빈치 코드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풀어 보시기를.

그리하여 열 세살이 되던 해 혁거세와 알영은 결혼을 했다. 현대의 우리보다 훨씬 성숙한 조선시대 이팔청춘 이몽룡 성춘향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할머니의 선조라면 신라시대 열 세살은 당시 적령기일지도 모른다. 그때가 BC 57년이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왕이 된 지 17년에 6부를 순행하며 위문하는 길에, 왕비 알영도 함께 가서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권하고(勸督農桑) 땅의 이로움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였다(以盡地利)고 한다.

알영이 박혁거세와 함께 통치를 하는 중요한 장면이다. 우물가에서 태어나고 계룡의 '용'이 물을 상징하는 수신 내지 해신인 것도 알영의 주관 영역이 치수가 중요한 농업을 관장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 후 그렇게 아들 딸 낳고 잘 살면서 61년을 다스리고 하늘로 올라간 혁거세가 7일 후 머리와 사지가 따로따로 땅에 떨어지자 알영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5등분 된 혁거세의 시신을 다섯 능에 장사지내 오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알영의 무덤은 어떻게 된 것일까. 현재 오릉은 1대 혁거세와 알영, 2대 남해, 3대 유리, 5대 파사 등 5명의 분묘라 전해진다. 여기서도 외래인인 4대 탈해가 빠지고 직계 후손들로 구성된 것이 흥미롭다.

박혁거세와 알영이 묻힌 경주 오릉

혁거세와 알영이 함께 성장했다는 궁궐터(창림사지)

궁금한 점이 꼬리를 문다. 혁거세는 왜 하늘로 올라가서 5등분으로 떨어졌을까.

경주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혁거세가 밤마다 말을 타고 어딘가 다녀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알영이 말 갈기에 빈대로 붙어 따라갔다가 하늘 신에게 들키자 노여움을 타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한다. 이 전설과 관련시키면 알영의 최후도 박혁거세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고 떨어진 곳이 알영정이 있는 권역임을 들어 알영이 혁거세와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보기도 한다. 어찌됐든 이 전설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죽어 산산이 흩어진 혁거세의 최후와 알영의 죽음을 개연성있게 만들어 준다.

이 두 왕의 아들인 2대왕 남해 차차웅은 누이 아로로 하여금 시조묘에 제사지내게 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때부터 종교와 정치, 제정祭政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박혁거세에 가려 이름만 남아 있던 알영은 단순히 '알영부인'이 아니라 신라 건국의 이성二聖, '알영여왕'으로서 당당히 신라역사를 열었던 그 위상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고구려 건국의 어머니 유화가 농업신이자 부여신으로 우뚝 섰던 모습처럼 알영은 신라를 건국하고 시조모이자 지모신으로서 농사와 치수 나아가 양잠에 이르기까지 농업국가의 기틀을 다진 명실공히 신라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정진원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문학박사(석보상절 주제)
철학박사(삼국유사 주제)

글. 사진
김정은 등불 편집실

즐거운 만남 행복한 학교 전라북도 학교혁신의 요람

전북 유일의 불교종립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금산중·고등학교를 찾아가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금산중학교와 금산고등학교(교장 조영석)는 대학캠퍼스와도 같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사계절 아름다운 교정은 봄철 인근 어린이들에게는 현장학습지로 손색이 없고, 여름과 가을엔 국제 규격을 갖춘 잔디구장과 체육관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하며, 겨울의 설경은 보는 이들에게 휴식이 된다. 2,659가구, 총 인구 5,200여명 남짓한 작은 마을 금산면의 중심에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원력이 움트는 교육도량 금산중 • 고등학교가 있다.

68년 전인 1947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경내에서 총 6학급 규모의 금산중학원이 설립됐다. 2년 후 현재의 교사校舍 자리인 김제시 금산면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불교중흥의 씨앗이 싹텄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955년에 고등교육기관인 금산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재양성 불사의 서원이 만개했다. 전북 지역 유일의 불교종립학교가 금산면에 터를 잡은 것이다.

이후 1967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교육기관으로 기반을 다진 금산중·고등학교는 현재까지 각각 1만여 명, 4천여 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는 김제 지역의 농촌지역 가운데 가장 외곽인 동부산간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거주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한 탓에 학생 수 또한 현저하게 감소하여 각각 6학급, 1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금산중·고등학교는 시골 마을의 규모 작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작지만 저력있는 교육현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금산중·고등학교는 '새롭게 생각하고 바르게 실천하자'는 교훈 하에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기르고 자기 주도 학습 프로젝트를 통해 자존감 있는 인재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매년 2-3차례 팀워크 정진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명사초청특강을 통해 동기부여의 시간도 갖는다. 최근에는 전북대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문학적 소양과 인간 중심 융합적 사고방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 산동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명상숲 체험프로젝트, 힐링캠프, 인문학캠프, 독서캠프 등을 실시하여 학업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금산중학교는 불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연극반 활동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산고등학교 금산윈드오케스트라는 지난해 8월 대전에서 실시된 제40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주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즐거움과 삶의 여유를 실현하는 매체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조영석 교장선생님

교내에는 부처님을 모신 법당 선재원禪齋院이 있다. 불법佛法을 구현하고 심신을 수련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수련의 장이다. 이곳 선재원에서 불교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금산중의 박동창 교법사와 금산고 임병모 교법사의 지도에 따라 금강경을 강독하고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두 교법사는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진학상담을 담당하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격형성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전주와 김제 지역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금산사 봉축법요식, 전주 연꽃축제, 파라미타 축제 등 다양한 불교행사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도 자자하다는 후문이다.

금산중학교 조영석 교장선생님의 교육관은 슬로건대로 '즐거운 만남 행복한 학교'이다. 교장선생님은 "'즐거운 만남 행복한 학교'를 통하여 교육의 내실을 추구하며 학생중심의 자존감 있는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종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고 역설하며 찾아오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

전라북도내의 유일한 불교종립학교 금산중·고등학교. 이 작은 도량에서 뻗어나가는 기운은 명실공히 미래 불교중흥의 산실을 향하고 있다.

(동국대사대부속 금산중·고등학교 : 063-543-0721)

글. 그림
수안스님 문수원

甘露茶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명산 명당이 많다
명당 세곳을 생각한다.

평지의 명당은 영축산 통도사요,
중앙의 명당은 금강산 유점사고
북쪽의 명당은 묘향산 보현사다.

영축산에 금샘과 은샘이 있다.
두 샘물 길러 독에 담아 하루밤 재워
정성껏 차를 다려
부처님께 올리는 茶는
병신년 새해 새날
불자님들 기도정진 지혜 복덕 이루리.

등불 이름 되찾아 참 고맙다.

을미년 겨울 안거에 든 결제 대중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음력 10월 그믐을 맞아 봉행된 첫 번째 포살법회에는 영축총림 전계대화상 중산 혜남스님이 계사스님으로 법상에 올라 설법전에 모인 1천여 사부대중을 향해 10중 48계목을 선창하는 것으로 청정한 포살의식을 설하셨습니다.

이날 포살법회에 참석한 대중은 총림 산하 전 대중을 비롯하여 재가 불자들까지 참석한 법석으로 설법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포살 대중은 계율을 지켜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등 범망경보살계본에 입각한 철저한 삶을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각 말사와 인근 타 교구 소속 스님들도 대거 포살의식에 동참했습니다.

계를 지켜 세세생생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불기 2559년 동안거 첫 번째 포살법회 봉행

33 조사스님 수행원력 거룩하여 이를 데 없어라

삽삼조사추모재 극락암 삽삼전서 여법히 모시다

매년 음력 10월 그믐날마다 봉행되는 삽삼조사추모재가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극락암 삽삼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추모재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지종대종사, 주지 향전영배스님, 극락호국선원장 명정스님, 극락문도회 회장 법산스님, 취운암 감원 약산스님, 영축총림 강주 현진스님, 선원장 영일스님, 율원장 덕문스님을 위시한 산중 어른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장 원명지종대종사님의 헌다공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영축총림 강주 현진스님은 삽삼조사추모재 기원문 낭독을 통해 '운집한 대중은 조사스님들의 정신을 추모함에 일편단심 대자비로서 감흥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부처님 은덕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코자,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코자 하오니 광명을 주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라는 지극한 발원문을 조사전에 올렸습니다. 한편, 문도회를 대표해 법산스님은 "33 조사스님들의 수행에는 법등의 원력이 담겨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하는 큰 원력의 자리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중을 향해 인사말을 전하셨습니다.

을미년 겨울, 대화엄의 법석에 오르다

불기 2559년 화엄산림법회 그 입재의 현장

불기 2559년 화엄산림법회의 입재를 알리는 방장스님의 법문이 동참한 7천여 불자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지 향전 영배스님의 간절한 축원으로 시작된 화엄법석에는 강주 현진스님, 총무국장 도문스님, 박물관장 인산스님, 율원장 덕문스님,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방장스님은 화엄산림법회를 처음 주창하신 경봉 노스님의 화엄법회 의미를 먼저 들려주셨으며 46년 된 전통의 법회는 세계에서 손 꼽히는 법석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화엄의 법석은 “역경의 바람을 이겨내고 보살심을 실천해야 하는 연습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을 반조해야 자신의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림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수행처요, 모든 부처님이 머무는 법화이므로 모두가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철저한 보살행으로 비로자나의 꽃을 피워야 함을 일러주셨습니다.

한편, 한달간의 여정에 든 대중을 향해 주지 향전영배스님은 “ 이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의 법석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대중은 한 달 뒤 부처님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어을 것입니다.”며 법회의 의미를 덧붙이셨습니다.

화엄산림법회는 오는 1월 9일 한 달간의 여정을 회향하게 됩니다.

“억만세가 다하도록 선불장選佛場이 되리”
수좌스님들 새 보금자리 마룻대 올라가다

12월 11일 신축 보광선원 상량식 봉행

지난 12월 11일 한창 불사가 진행 중인 신축 보광선원普光禪院에 마룻대를 올리는 상량식이 봉행되었습니다. 통도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 선원이 그 골격을 갖추었음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에 방장 원명스님, 주지 영배스님, 원로의원 성파스님을 비롯하여 통도사 대중 스님들과 불자 등 1천여 명이 동참하여 불사의 원만 회향을 서원했습니다.

주지 영배스님은 상량문을 통해 “한갓 승가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천룡팔부가 다 함께 즐거워함이로다. 이러한 것이 선불장인 선사의 가풍이라, 마음이 공空하여 급제하는 자가 많이 출현하리라.”며 새 보광선원에서 또한 많은 선지식이 배출될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방장 원명스님은 “현재의 보광선원은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 선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낡은 것은 물론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스님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선원 불사가 여법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원로의원 성파스님은 “방장스님이 부임 초부터 선방 불사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상량식을 봉행하게 됐다. 방장스님과 주지스님의 원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통도사 계곡을 따라 약 2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공터에 새롭게 마련될 수좌 스님들의 수행공간은 이날 상량식이 거행된 90여평 규모의 선원동을 비롯해 요사채와 부속 건물 등 모두 8동으로 조성됩니다.

“혜안 열려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생전 육성으로 경책의 울림 수지하다

월하대종사 제12주기 다례재 및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봉행

“깨달았다고 해도 혜안이 없는 사람의 그것은 지견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지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력은 없고 말로만 하는 것을 구두선口頭禪이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담이 드는 일도 아니라 말로는 얼마든지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만으로는 깨달았다 할 수 없습니다.”

故 월하대종사의 생전 육성을 타고 엄중한 가르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경내 설법전에서 노천당 월하대종사 열반 제12주기 추모다례제가 엄수되었습니다. 이날 다례제에는 방장 원명스님, 주지 영배스님, 노천문도회 문도대표 상우스님을 비롯한 문중 스님들과 불자 등 2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자리하여 월하스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례재는 월하스님의 영전을 모시고 개식, 대중삼배, 문도 스님들과 재가대중의 헌다·헌화, 추모입정, 월하스님의 육성법문, 대중삼배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문도대표 상우스님은 “월하스님 열반 12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방장 스님을 위시하여 본사 주지스님과 선원, 강원, 말사 주지 스님까지 많은 대중 스님들이 모여 주신데 더해, 성대하게 제를 차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날 다례재에 이어 월하스님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영축문화대상의 제3회 시상식도 거행되었습니다. 올해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는 학술문화상에 윤영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장이, 평화실천상에는 사회복지법인 자재공덕회 이사장 보각스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현문스님은 상금 5백만원과 상패를 각각 수여하였습니다. 현문스님은 이에 앞서 “국적과 종교에 차별 없이 더 많은 다양한 계층의 수상후보자를 발굴하여 사회발전의 표상으로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월하스님은 비록 육신을 벗고 가셨으나, 그 가르침은 오래도록 달빛처럼 무명을 비추어 일깨우는 지남이 될 것입니다.

더함 없는 베풂의 날, 늘 오늘만 같기를…

통도사 동지 맞아 팥죽 공양·새해 달력 보시

12월 22일은 한 해를 마감하는 동지절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 불가의 양대 명절로 꼽히는 동지를 맞아 통도사에서는 도량을 찾은 모든 대중에게 팥죽 공양과 함께 병신년 새해 달력을 보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사중에서 불자들에게 공양한 팥죽은 동지 전날 강원 학인스님들과 율원의 스님들, 자원봉사자 등 대중이 모여 빚은 새알을 넣어 만들었는데 팥 6가마, 멥쌀 6가마, 찹쌀 2가마가 팥죽을 끓이는데 소요됐습니다.

한편, 매년 새 해를 앞두고 통도사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달력을 제작하여 보시해 오고 있는데 올 해는 통도사를 찾는 모든 불자들에게 '아낌없이 보시하자'는 주지 스님의 특별한 요청으로 5만부의 달력을 보시하여 흐뭇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발 맞춰 분주히 달려온 을미년 한 해 함께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2015 통도사 신행단체 및 불교대학 송년의 밤

을미년을 사흘 남겨둔 지난 12월 28일 환타지아 콘도에서 '2015 신행단체 및 불교대학 송년의 밤'이 열렸습니다. 지난 1년의 소회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이 자리에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을 위시하여 각 부서 국·과장 스님들이 참석하였으며 15개 신행단체와 불교대학 임원진 등 150여명이 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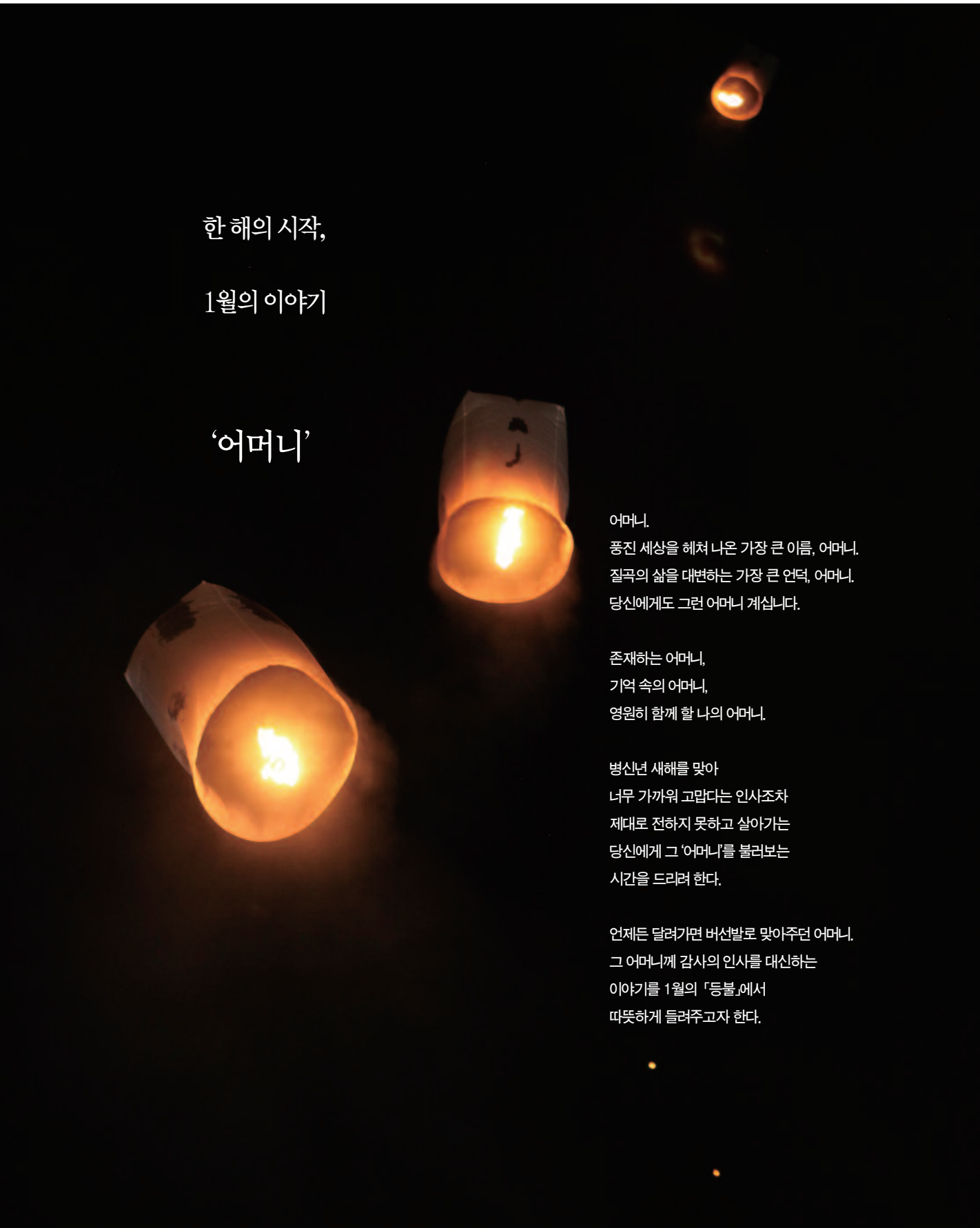
송년의 밤은 개회식으로 꾸며진 1부와 축하공연, 노래자랑이 펼쳐진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개회식에서 1년간의 활동상황 보고가 영상으로 상영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중 행사에서 기꺼이 통도사의 손과 발이 되고 가람의 외호자가 되어 마음을 모았던 순간들이 스크린에 흐르는 동안, 장내에는 오롯이 통도사의 일부였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벅찬 감회들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주지 영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각종 법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량 곳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봉사에 임하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며, "부처님 도량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덕에 더욱 여법해진다고 생각합니다."고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격려를 선물했습니다.

1부 마지막 순서로는 통도사 행복바라미 활동으로 모연된 400만원의 성금을 하북면 동부마을 어르신 4명과 통도사 어린이법회 어린이 2명에게 기부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동부마을 김진동 이장님이 대표로 성금을 전달받았습니다.

2부에서는 기꺼이 앵콜 요청까지 수락한 주지스님의 노래 한 자락을 시작으로 전자 첼리스트 설아, 트로트가수 박미원의 축하공연과 신도 여러분들의 노래자랑이 펼쳐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펼쳐진 한바탕 잔치를 1년의 보상이라 하기에는 이름을 감추고 보시한 마음의 크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함께 하게 해주어서 감사했다 말하고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대가람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오래도록 함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

1월의 이야기

‘어머니’

어머니.
풍진 세상을 헤쳐 나온 가장 큰 이름, 어머니.
질곡의 삶을 대변하는 가장 큰 언덕, 어머니.
당신에게도 그런 어머니 계십니다.

존재하는 어머니,
기억 속의 어머니,
영원히 함께 할 나의 어머니.

병신년 새해를 맞아
너무 가까워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그 ‘어머니’를 불러보는
시간을 드리려 한다.

언제든 달려가면 버선발로 맞아주던 어머니.
그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는
이야기를 1월의 「등불」에서
따뜻하게 들려주고자 한다.

글
정찬주 소설가

어머니,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아침식사를 하다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다. 식탁 위에 귤이 그려진 조그만 과자상자가 놓여 있기에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했다.

"아가씨들이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로 놀러 가셨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돌아오실 때 제주도 공항 선물매점에 들러 당신 준다고 사오셨대요."

과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과자상자를 뜯어보았다. 귤에 초콜릿을 발라 건조시킨 것 같은데 아이들 입에 맞을 것 같은 새콤달콤한 맛이었다. 이후 아내의 입맛에도 별로 맞지 않은지 과자상자는 한 동안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88세의 어머니에게 나는 아직도 알사탕을 깨무는 64세의 아이와 같다. 어머니의 걱정을 들어야 하는 영원한 어린 아이일 뿐인 것이다. 두 여동생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내 마음은 뜨끔했다. 나는 아직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따금 미안한 마음이 솟구쳐 여행을 권유하면 당신께서는 즉시 '나는 어디 가는 것이 싫다. 집이 제일 좋다.' 하시며 거절하시곤 하여 정말로 여행을 싫어하는 분인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 봄에는 반드시 어머니를 불러 가까운 데라도 꽃구경을 하고 돌아와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지금처럼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어머니는 목청이 좋아 백설희, 이미자 노래도 잘 부르셨고 60대까지만 해도 흥이 나시면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시고 난 뒤 좌중의 분위기를 이끄는 분이셨다. 십수 년 전 모 방송국에서 작가의 고향을 촬영할 때만 해도 어머니는 당신의 고향인 보성군 회천면 바닷가의 서당골에 가셔서 소주 두어 모금 마시고서는 해방 직후 유행했다는 노래를 한 곡 재촬영 없이 뽑으셨다. 담당 피디가 어머니를 지켜보더니 나보다 더 연기를 자연스럽게 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독자들이 내 산방인 이불재로 찾아와 이른바 '작가와의 대화'를 갖는 시간이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다. '왜 작가가 되었느냐?' '역사소설의 자료는 어떻게 구하느냐?' '암자는 몇 군데나 가보았느냐?' '글 솜씨는 타고난 것이냐, 노력하면 잘 쓸 수 있느냐?' 등등이다. 특히 <다산의 사랑>과 <천강에 비친 달><암자로 가는 길>이 발간되었을 때 그러한 질문이 더 쏟아졌다.

솔직히 나는 재능이 탁월한 천재작가는 아니다. 그렇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작가도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오십여 권의 책을 발간한 결과만 놓고 보면 나 역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끊임없이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책 내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나 한 줌 명예라도 얻겠다는 바람을 버린 지는 오래 됐다. 허망한 그런 것이야말로 바보짓이라는 결론을 내 경험칙經驗則에 의해 이미 내려놓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동력으로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순정한 힘의 원력이 있기는 한 것일까.

이쯤에서 나의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어머니처럼 낙관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 지금도 어머니는 자신감이 지나쳐 겸손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 정도다. 어머니가 자주 쓰시는 가정법이 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우기만 했으면' 하시는 조건절의 말씀이다. 외조부께서 여자가 신식학교에 가면 연애하고 바람난다고 일제강점기 때 국민학교를 자퇴시켰다는데 어머니에

게는 천추의 한이 되신 모양이다. 88세의 어머니는 지금도 친인척, 친구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계신다. 주소가 적힌 누런 수첩이 있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화투를 치실 때도 기가 막히게 상대 패까지 먼저 읽고 셈을 해주신다.

이쯤 되면 어머니란 이름 앞에 천재적(?)이란 수식어를 붙여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러한 어머니에게 최고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인 것 같다. 어머니는 땅꼬마 시절부터 나에게 늘 '우리 아들 최고다'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내가 최고일 리 없었다. 탈선하여 성적표가 엉망으로 나올 때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은 한결 같았다. 마치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을 기어코 보시고야 말겠다는 어머니 식의 기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또 한 가지 더 어머니가 내게 주신 선물은 밑도 끝도 없는 신뢰였다. 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언행을 믿었고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초등학생인 내가 거짓말을 하여 돌아가신 선친께 매를 맞자 '저 애는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거짓말을 했다'고 옹호해주셨다.

중국 당나라 때 부처를 찾으려고 나선 양보楊補는 주막주인에게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와 맞아주는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충고에 집으로 돌아온 뒤 불재가중佛在家中이란 말을 남겼다지만 나는 어머니를 감히 나의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아내는 성철스님의 속가따님인 불필스님을 뵌 뒤부터 20여 년째 새벽마다 이불재 아래에 있는 쌍봉사로 내려가 108배를 해오고 있다. 서울의 안국선원에 가서 간화선수행을 하고 나서는 수불스님으로부터 불명을 하나 더 받아오기도 했다. 원래의 불명은 입적하신 법정스님께서 무량광이라고 지어주셨던 것이다.

아내가 날마다 부처님 앞에서 절하듯, 나 또한 광주에 사시는 나의 관세음보살님인 어머니께 아침마다 안부전화를 드린다. 외국에 있을 때 말고는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 서로의 육성을 듣고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안부전화인 것이다. 친구들은 효도전화라고 하지만 그 말은 불효자식인 나에게 낯간지러운 언사일 뿐이다. 그냥 그거라도 해야 속죄가 되고 위안이 되는 기도 같은 전화일 따름이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진다. 나도 어머니를 뒤따라 가면서 늙어가는 모양이다. 쓸데없는 눈물이 돋보기 속에서 흐른다. 어머니,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이십니다.

정찬주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글을 쓰는 작가로 살아오던 그는 자연을 스승 삼아 진정한 '나'로 돌아가고자 저잣거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늘 마음속에 그리던 남도 산중에 집을 지어 들어앉았다. 산중에 있는 듯 없는 듯 무지렁이 농부처럼 잊혀 살면서 자연의 섭리를 좇아 살고자 하는 그의 바람은 솔바람으로 시비를 집착하는 귀를 씻어 불佛을 이룬다는 뜻의 이불재耳佛齋라는 집 이름에 담겨 있다.

글
하정은 불교신문 편집국 취재부 차장

엄마의

부처님

"남편이 군인아저씨라고 하더니 아직 코빼기도 안보이네…. 고추 단 장군감인데, 이 놈도 입양가려나…." 스물셋 엄마는 첫 아들을 낳고 입양 어쩌고 쑥덕대는 소리에 눈을 떴다. "우리집에 갈래요." 출산한지 1시간만에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말아서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기는데 그때서야 애기아빠 이등병이 달려들어왔다. 며칠 굶었는지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몰골로 나타난 남편은 거뭇한 기름때가 낀 다 부르튼 손을 덜덜 떨면서 갓 태어난 아들을 매만졌다. 가족없이 형편이 어려운 임산부 대상으로 출산을 돕는 가톨릭 복지시설 사람들은 "아빠가 없는 아인 줄 알았다"면서 다행스러워했고, 아이를 사이에 둔 젊은 부부는 웃는지 우는지 모를 표정으로 말을 잃었다.

휴가 나온 남편은 신문지에 싸인 미역을 허리춤에 끼고 아이를 안은채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군화를 벗고 쉴 틈도 없이 부엌에 엉거주춤 서서 미역부터 물에 불리는 남편이 아내눈에 보였다. 소고기는커녕 미역국에 넣을 멸치대가리 하나 없었던 살림에 남편은 거칠고 딱딱한 줄기부분을 떼어낸 보드라운 미역만 솎아서 아내의 상에 차렸다. "여보 배고프지? 미역국 많이 끓였으니까 뜨실 때 빨리 먹어." "당신도 같이 먹자." 남편은 괜찮다면서 커다란 냄비를 들고와 아내에게 솎아주고 남은 딱딱한 미역줄기를 우적우적 뜯어먹었다. 엄마는 지금도 말한다. "가난하고 무뚝뚝한 니 아빠랑 50년 가까이 살면서 그만 두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니? 그럴 때마다 그 날 보드랍고 좋은 미역 나 다주고, 뻣뻣한 미역줄기만 먹었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스물넷 이등병 아빠는 이튿날 다시 귀대를 해야 했다. 새벽녘 군화끈을 매면서 아빠는 지하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울었다고 한다.

엄마는 그날부로 아들놈과 굶어죽지 않으려고 악을 쓰며 버텼다. 남의 집 파출부 일이 최고지만 어린 아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다. 아들을 업고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로 논밭을 헤매면서 농삿일도 거들고 나물도 캐다 팔았다. 비가 오거나 일이 없을 때는 하다못해 읍내 다방에 가서 껌이라도 팔았다. "나 하나면 굶으면서 대충 살았제. 내 새끼 젖 물리려면 나도 잘 먹어야뒁께."
전라도 영암 출신인 엄마는 안젤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였다. 경상도 토박이에 7남매 장남인 아빠 쪽은 독실한 불교집안. 시댁 어른들에게 '전라도도 못마땅한데 가톨릭이라고?'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서 출발한 시집살이였다. 아빠가 전역하고 한동안 시어른을 모셨던 엄마는 젖먹일 때 외에는 아들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고된 일을 해야 했다. 고된 일 중 하나는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이른바 불공을 올리러 가는 일도 포함됐다. 며칠 전부터 공양을 준비하고 신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씻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길이 스물다섯 새댁에겐 곤욕이었다. 남해 금산 꼭대기에 자리잡은 보리암, 망운산 망운암…. 지금 가도 거칠고 험한 길이니 오죽했을까.

하정은
1999년 불교신문 입사
현. 불교신문 편집국 취재부 차장

글
양원식 부산 불교문인협회 고문, 전 해동고 교장

어머니 비녀

2015년 12월 10일은 어머님의 소상날입니다.

경인년 2010년 10월 29일(양력 12월 4일) 새벽에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고향에 도착하니 아직은 이승인 듯 평안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오히려 급한 걸음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을묘생, 세수로 보면 100세, 출가 후 80여 성상. 토옥을 지키시다가 종천을 고하신 걸음을 놓고 호상이라하나 임종 없는 자리를 가슴에 품고 가시지는 않으셨는지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자의 와병을 다스리는 중이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앞을 세우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병상일지를 접으면서 보낸 일상이 너무도 곤혹스러운 일과였습니다. 고통을 나누지 못한 미안함과 민망함 그리고 참담함의 일지를 독백으로 나눈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연길에 적을 둔 박 여사에게 부주 내외분의 간병을 맡긴 것이 10여 년이었습니다. 내자가 남의 눈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한 뜻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자녀들의 객지 생활로 귀향을 독단으로 결행한 것이 치료를 실기한 원인은 아니었는지 후회가 앞을 가리기도 합니다. 좀 더 잡아 두지 못한 삼중 죄인이 되었습니다. 슬하를 지키지 못한 내자의 걸음에 참회를 거듭하는 오늘입니다.

통도사 서운암 무위선원에서 내자의 49재와 어머님의 천도제상을 차려서 왕생을 빌었습니다. 정성을 다 하신 삶의 족적이 너무나 커서 앞일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제례 풍속에 따라 여법하게 하늘로 모셨습니다. 부주 내외분과 내자의 음덕을 기리는 여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독자 중 아홉 남매(6남 3녀) 맏이로 태어나서 망팔십 줄에 아버지 어머니를 호칭한 자신을 복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져 누으신 후 조석으로 쾌차를 빌면서 한 편 두 편 모은 시 편것이 150여 편입니다.

“어머니 비녀”라는 표제명으로 제17집을 만들어 햇살 밖으로 보냅니다

개인사이기는 하나 어머니라는 큰 자리를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할 것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봅니다. 표제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필자가 직접 썼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얼룩진 자리를 안고 가겠습니다.

2015년 12월 온고溫故의 격格을 기리며

증산산방

孤哀仔 曉山合掌

양원식

경북 예천 출생
동국대학교 국어국문과 졸업
부산해동고등학교 교장 역임
부산 불교문인협회 상임고문 역임
현. 부산 불교문인협회 고문

글
김윤희 등불 편집실

일러스트
정기란 불교일러스트 작가

글. 사진
김윤희 등불 편집실

수행으로 거듭날 해동의 으뜸 선원

동국제일선원 내원사의 공양간 속으로

'수행이란 무릇 거꾸로 노를 저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했던가. 천성산내원사로 가는 길, 잠시 차를 세우고 넓디넓은 계곡을 들여다본다. 시원始原을 알지 못하는 물줄기는 겨울임에도 멈춤이 없고 고개를 들어 천성산을 올려다보니 청한 구름 머금은 모습은 심중의 보배를 숨긴 듯 경이롭기만 하다.

오래 전, 비구 스님들의 수행처로 이름이 나 있던 내원사(주지. 진성)는 근대에 들어 비구니 수옥스님이라는 걸출한 수좌스님이 수행하며 유명세를 떨친 도량으로 그 산세와 수행의 가풍 등이 해동국의 제일이라 하여 '동국제일선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곳이다.

그랬을 것이다. 오로지 수행이었을 테고, 몰록 한 생각 머무는 바 없이 산중을 호령했을 것이다. 그렇게 승풍을 진작시킨 내원사를 찾아든 소회란 실로 기쁨이다. 수행을 제일로 삼고 있었으니 말이다.

도량을 500여 미터 앞두고 조성돼 있는 수옥스님의 부도탑은 앞서 한 시대를 어떻게 살았을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좋은 표식이다.

유독 교량이 많은 내원사는 굽이굽이 줄기 쳐 흐르는 계곡의 형태를 그 많은 교량이 말해 주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도량으로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도 여의교를 건너야 한다. 10여 개에 이르는 당우지만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오래된 선방과 원화당에서는 소리 이전의 무엇이 감지되는 듯 고요함으로도 모든 것을 대변한다. 오전 정진에 든 수좌스님들의 선풍일 것이다.

최근 증·개축을 한 대웅전 선나원禪那院과 정려헌淨慮軒, 심우당尋牛堂은 기도와 수행 처소로서의 기능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을 위한 배려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눈치다.

복층 구조로 된 심우당은 종무소와 요사 기능을 위층에서, 아래층인 무진장無盡藏은 공양간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무진장을 사선으로 마주하고 있는 곳이 전통의 공양간이다.

키가 높은 전통의 공양간 나무 문이 삐그덕 하고 열리자, 정갈하게 걸린 검은 무쇠 가마솥이 열린 문 사이로 쑥 들어온다. 부뚜막엔 윤기가 반질하고 비구니 스님 특유의 단아함이 느껴지고 있었으며 출입문 우측으로는 장작더미가 즐비하다. 오래고 빛이 바랜 나지막한 나무 의자에는 '원주용'이라고 소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손때 묻은 앉은뱅이 의자는 꼭 한 번 앉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 빛이 스며드는 높이 난 나무 창 사이마다에는 솥을 씻는 긴 막대 손잡이의 수세미가 운치 있게 세워져 있다.

어린 시절 눈에 익었던 부뚜막의 기억이 그대로인데 내원사 부뚜막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다. 부뚜막 중간에 서 있는 수도꼭지이다.
묻지 않고도 기능을 알 수 있었으나 한 번 더 확인을 해 본다. 역시 편의를 위해 설치된 기능이라 한다. 밖에서 물을 길어다 솥을 채우는 일이 잦으므로 그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특화 장치인 셈이다.
그렇게 장작을 지펴 선방의 구들을 데우고 큰 공양물이 그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며칠 전 동지에도 세 개의 가마솥에서는 팥죽이 끊임없이 끓었고 원주 소임을 맡고 있는 서진스님을 비롯한 두 세 명의 별좌 스님들과 자원봉사를 자처한 몇몇의 불자들은 이곳 공양간에서 쉴 새 없이 팥죽을 떠다 현대식 공양간 무진장으로 날랐다고 한다. 실로 무진장이었을 그림이다. 편액이 낯익다. 역시 경봉대선사의 친필을 전각으로 새긴 글귀이다.

그 시간, 무진장에서는 서진스님의 진두지휘 속에서 몇 가지의 공양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었다. 무 조림, 두부조림, 도토리묵, 잡채, 버섯볶음이 연신 준비대를 메웠고 배추김치, 총각김치, 나박김치, 땅콩조림 등이 겨울 공양의 찬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도토리묵과 곁들여 질 양념장이 별좌스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졌고, 각종 이름표를 단 양념통들이 부족함을 채워줄 요량으로 가지런히 서 있다.
스님들의 공양 상이 준비 된 방을 살짝 들여다본다. 삼합, 청산, 백운, 오관, 지전, 입승 이라 새겨진 전각의 글귀가 이 도량의 가풍과 저마다의 근기를 엿보게 한다. 소박하되 부족하지 않으며 풍성하되 넘치지 않는다. 삶 또한 그럴 것이다. 적은 것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모습, 바로 소욕지족의 풍토일 게다.

잠시 전통의 공양간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정면에 모셔진 조왕님 전에 객 또한 합장으로 예를 갖추고 잠시 공양간의 운치 속에 앉는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화대 소임을 맡은 스님은 군불을 지펴 방을 데워야 하는데 무심한 객 또한 장작 한 더미 듬뿍 안아서 아궁이에 밀어 넣고 싶어진다. 그렇게 땐 장작은 스물 네 시간 내내 따신 구들을 선사하는데 과연 선인들의 지혜를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듯 혼자만의 시간 여행에 빠져있는 동안, 어느덧 공양을 알리는 목탁이 울린다. 똑똑 또르르르르, 똑똑 또르르르르…

대중의 공양을 알리는 목탁소리에 맞춰 일제히 무진장으로 향하는 스님들의 걸음이 느껴진다. 허기를 채우는 일에 앞서 저마다 조왕신을 향해 합장 반배의 예를 갖춘 후 무진장으로 향한다. 그 모습이 참으로 정중하다. 오관게를 외고 공양에 감사함을 전하는 일과 다르지 않으며 매사에 소홀하지 않을 것만 같아 되려 감사하다. 실답게 수지하여 행하고 있다는 마음에서이다.

무진장의 공양 처소 곁으로 다가간다. 그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움직이는 소리 외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는다. 수행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일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저 할 따름이고, 오직 할 따름이다. 그러니 공양 또한 마찬가지다. 합장으로 공양의 예를 갖추고 나서는 스님들이다.

선해일륜禪海一輪이라 적힌 편액 아래에서 누군가는 비질에 여념이 없고, 또 누군가는 정려헌의 모퉁이를 돌아 포행길에 나선다. 그리고 누군가는 햇빛을 받으며 선방 뒤 언덕을 걷는다.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스님이 창건한 내원사는 천명의 대중이 머물렀다는 천성산에 깃들어 있으며 통도사의 말사로 50여 대중이 수행을 하고 있는 비구니 제일도량이다.

평소 "수행하는 스님들을 외호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공부도량의 가풍을 이어가자"라고 대중을 독려하는 주지 진성스님의 말처럼 사실, 내원사는 결제철을 구분하지 않고 사철 정진중인 셈이다.

오고 가는 일, 앉고 서는 일에 걸림이 없기를 바라는 동국제일선원의 선풍이 그렇게 다져지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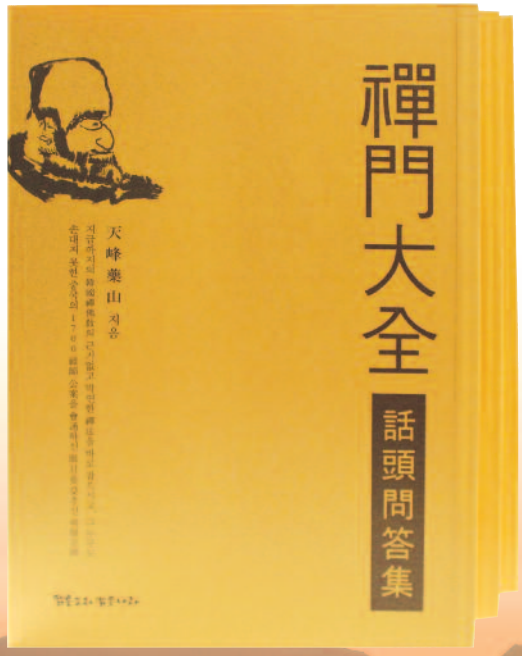
(천성산내원사 : 055-374-6466)

조사공안을 회통한 당대의 선지식

- 천봉약산대선사

한국 선의 분명한 근거 및 선과 도의 법체계를 세운 일대사

거세게 다그치는 설봉선사의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약산스님은 '개가 불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가 불성이 없다' 라는 벽력같은 호통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때 약산스님의 나이 18세, 견성을 이루었다. 이후 25세가 될 때까지 세 번의 깨달음을 얻은 뒤, 30세가 되던 해 도량석과 새벽종소리에 다시 한 번 대오하게 된다.



禪門大全

話頭問答集

지금까지의 韓國禪佛敎의 근거없고 막연한 禪法을 바로 잡으시고,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한 중국의 1700 祖師 公案을 會通하신 眼目을 갖추신 明眼宗師

문의 통도사 취운선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전화** : 055-381-6201

글
안필섭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오늘날 불교는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전 세계에 걸쳐 신행되고 있지만, 그 전파 경로를 더듬어 되돌아가면 그 출발지는 항상 인도로 귀착됩니다. 인도는 남한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중국과 함께 아시아권의 정신문화적 주축으로 역할해 왔습니다.

불교의 탄생은 인도의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10세기경 불교가 인도에서 소멸되기 전까지 남북에 걸친 인도의 전 지역에서 성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인도불교를 살펴보아야 하며, 인도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되는 인도의 사상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인도 불교의 역사 _

인도사상의 특징과 흐름(1)

그렇다면 무엇을 인도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인도사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 태동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도사상의 저변에 흐르는 공통된 물줄기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업, 윤회, 해탈이 그것입니다. 즉, 업, 윤회, 해탈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인도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도사상들은 이러한 업, 윤회, 해탈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따라 각각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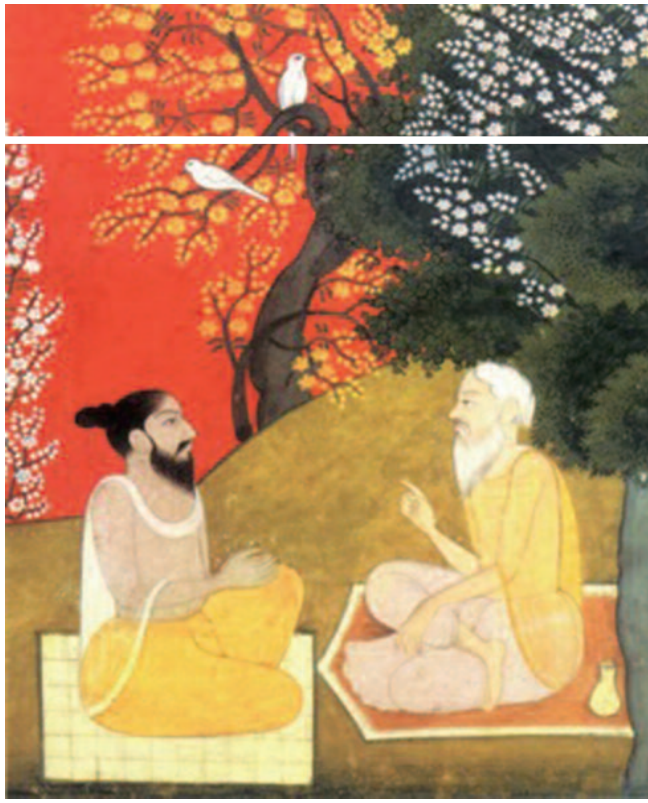
물론 불전에서 육사외도라고도 부르는 유물론자의 경우 인도에서 발생한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업, 윤회, 해탈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비주류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인도사상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도사상의 세 가지 특징은 언제부터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체계화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도의 사상은 크게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문명의 시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인더스 문명의 시기', 둘째, 아리안족의 유입과 함께 시작된 '베다의 시기', 셋째, 철학적 사조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우파니샤드의 시기', 넷째, 철학사상의 체계화로 인해 발생된 '학파의 시기', 다섯째, 이슬람 세력의 유입으로 인한 사상계의 재편인 '힌두이즘의 시기'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시기'는 아마도 수행 전통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 발견되기 시작한 인더스 문명의 유적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이 '인더스 인장'이라고 부르는 도장인데, 이 가운데 가부좌를 튼 뿔이 달린 형상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아마도 그 당시 이미 수행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문자가 아직은 완전히 해독되지 않아 그 전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유물을 통해 짐작해볼 때 수행 전통은 인도 지역에서 문명의 최초기부터 실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몰론 수행은 해탈의 수단이 되지만, 이때 당시 이미 해탈의 개념이 형성되었을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더스 문명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취를 감추고, 이후 인도의 서북부로부터 아리안족이라고 부르는 외부 세력이 유입되었는데, 이를 '베다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베다는 일종의 제식祭式을 위한 문헌인데, 코카서스 지방(지금의 러시아 지역)을 본향으로 하던 일련의 무리가 베다의 전통을 가지고 인도로 들어와 정착하여 제식 전통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뿌리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다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위해 각각의 신에게 바치는 찬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철학적 사고를 낳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베다 전통에서 태양의 신은 '바루나'라고 불렀는데, 자연 현상에서 비롯된 이 신격은 이후 태양의 규칙성, 공평성이라는 속성을 토대로 사법의 신이 되었습니다. 태양신의 이러한 성격의 변화는 이후 규칙, 이치, 법칙이라는 리타(rita)라는 개념을 도출하기에 이르고, 이는 훗날 업(karma)의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업, 윤회, 해탈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는 '우파니샤드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라는 말은 '서로 가까이 앉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스승과 제자가 긴밀히 철학적 담론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는 스승에게 '나'는 무엇인지 질문하고, 스승은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에게 스스로 팔을 자르라 말합니다. 곧이어 잘린 팔이 '너'인지 스승은 질문하고, 제자는 잘린 팔이 더 이상 '내'가 아니며, 자르고 잘라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그 무엇이 '나'임을 깨달아 자아 개념을 파악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앞선 시기의 수행 전통과 제식 전통이 서로 융합된 사상적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전개된 다양한 철학적 사고방식은 인도사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업, 윤회, 해탈이라는 개념을 성립시키기에 이릅니다. 불교 또한 이러한 사상적 분위기에서 태동할 준비를 합니다.

인더스 인장_파슈파티



우파니샤드_스승과 제자

안필섭安必攝
대구 출생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학부, 석·박사 졸업(철학박사)
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현. 한국요가학회 학술이사

TONGDOSA
영축총림 통도사

통도사
'장엄등 강습' 안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사중의 크고 작은 법회와 행사를 장엄할 전통등 제작을 위한 강습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전통등 강습'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강습을 익힌 신도님들과 불자들에게는
사중에서 전통등을 제작하는 불사에 참여,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전통등 강습'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통도사 요양병원
건립 불사 권선문

영축총림 통도사는 1300년 전통의 수행가풍을 이어온 수행도량입니다. 영축산의 위용과 함께 수행풍토를 이어가고 있는 통도사에서는 승가의 수행 외호와 함께 재가불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 불사에 뜻을 모으고 2014년 6월 21일 기공식을 봉행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비와 수행, 자선의 마음을 함축한 요양병원을 계획,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통도사가 전 대중의 뜻을 모아 착수하게 된 불교 요양병원 건립에 여러 불자님들의 수희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신앙심 고취와 더불어 향기어린 봉양의 의미를 지닌 이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불사문의

회계실 TEL. 055-382-7187
종무소 TEL. 055-382-7182
화엄전 TEL. 055-381-1288
FAX. 055-372-7010

동참 계좌번호

농협 351-0655-3958-23 (예금주 : 통도사)

병원불사 내역

일병동 동참	일억원
특실 동참	삼천만원
진료실 동참	천만원
일병상 동참	백만원
의료기기 동참	오십만원
휠체어 기증	삼십만원

※ 불사금은 분납하셔도 됩니다.
※ 동참금은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통도사 요양병원 법당
약사여래 삼천불 봉안 불사

사부대중의 원력모아 요양병원 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약사여래 삼천불전을 건립하여 약사여래
삼천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가정 가정 무루 동참하시어 가족분들의 무병장수와
병고쾌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동참내역 원불 조성 소불 - 일백만원, 대불 - 일천만원
불사문의 기도접수처(화엄전) TEL. 055-381-1288 / FAX. 055-372-7010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1662-8624-1(예금주 : 통도사)

글. 사진
선본 통도사 포교국장

작은 부처의 나라

라오스를 가다

이른 새벽 울산역의 첫 기차에 몸을 싣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야 라오스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첫 라오스와의 만남은 '한국의 전통산사' 해외 유사 유산 비교 방문 연수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으로 7개 사찰의 관계자들과 총무원 문화부 식구들이 도반으로 함께 하였다.

라오스는 태국이나 미얀마 등 여러 익숙한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들과는 달리 최근까지 한국인들의 발걸음이 비교적 적은 곳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 케이블 방송의 영향으로 원래의 의미를 조금은 잃어버린 채 지상 최고의 배낭여행지라는 수식어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사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로 타임지에 선정된 이후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끊임없이 신비로운 동양의 한 나라에 발길을 옮겨놓고 있었다. 나 역시 미지의 불교국가인 라오스에 대한 기대로 한껏 들뜬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다섯 시간여의 비행 끝에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비엔티안은 프랑스의 식민통치 탓에 불려진 지명으로 언뜻 인도의 뭄바이와 봄베이라는 지명의 혼용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이 머리를 스쳐갔다. 라오어로 위앙짠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백단향' 또는 '달의 도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아름다운 이름만큼이나 공항과 시내의 풍경은 잘 정돈되고 정갈한 모습으로 낯선 이방인들인 우리 일행을 맞아주고 있었다.

첫 일정은 빠뚜사이라는 독립문에서 시작했는데 이

문은 '빠뚜=문, 싸이=승리'를 의미하여 곧, 승리의 문이라는 뜻이란다. 특이하게도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기념으로 지어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파리의 개선문 형식으로 외형을 만들고, 내부는 라오스 양식으로 화려하게 조각한 점은 다소 이채로왔다. 이 탑은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게 되어 있어 높은 건물이 많지 않은 비엔티안에서는 시내 전경을 바라 볼 수 있는 전망대이자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해 내고 있었다.

둘째 날 본격적인 라오스 사원의 순례가 이어졌다. 라오스의 사원은 우리의 'ㅇㅇ사'와 마찬가지로 '왓 ㅇㅇ'이라고 부른다. 인구의 약 70%가 불교를 신봉하는 그야말로 불교국가인 라오스는 곳곳에 사원들이 자리하여 서민들의 기도처이자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비록 전쟁의 역사 때문에 새롭게 건설된 사원이 대부분이고 고풍스런 느낌은 찾아 볼 수 없었지만 한적한 가로수 길과 함께 메콩 강이 도시에 접해 유유히 흐르고 있어 바쁜 걸음을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듯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왓프라깨우는 비엔티안으로 수도를 옮긴 뒤 지어진 왕실사원으로 에메랄드 불상인 프라깨우를 모셨던 곳이었으나 1779년 태국의 침략을 받아 불상은 약탈당했으며 현재는 재건된 법당 건물과 단촐한 부속건물 한 두 동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왓시사켓으로 자리를 옮겼다. 왓프라깨우의 실망감에 젖기도 잠시 왓시사켓의 풍모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비엔티안에서 가장 오래된 이 사원은 비록 1818년에 건설되어 한국의 사찰들에 비하면 역사는 보잘 것 없었지만 회랑에 모셔진 6000여 불상들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태국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이 사원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대법전(씸.SIM)이 태국 양식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니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였다.

비엔티안에서 가장 신성시 한다는 왓시므앙은 라오스 시민들의 기도소원성취 도량이었다. 이곳에는 수많은 순례자와 기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미래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불상이 답을 해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란다. 한국이나 라오스나 불자들의 소원에 대한 염원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왕실사원에서의 조금은 실망한 첫 일정과는 달리 오후까지의 일정을 소화한 일행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평안한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있었다. 그것은 이곳 비엔티안의 사원들이 오랜 역사를 간직하거나 혹은 특별한 유물이 있어 느끼는 감동이 아니었다. 수수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풍기는 숭고함과 경외심 같은 것이었다.

비엔티안의 일정을 뒤로하고 오후 늦게 국내선을 통해 드디어 루앙프라방으로 향했다.

루앙프라방은 라오스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화도시이자 비엔티안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 란쌍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기도 하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한 이곳은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였다.

다음날 이른 아침 탁발(딱밧)행렬을 참관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동행했던 몇몇 재가자들은 직접 탁발행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라오스는 여느 남방불교국가 가운데서도 탁발의 모습이 가장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동자승부터 나이 많은 스님들까지 약 200명의 수행자들이 탁발을 행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2500여년 전 부처님 재새시의 모습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흡사 그 때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으리라.

탁발행렬 후 서민들의 아침시장 등을 둘러보고 왕궁박물관을 중심으로 오전 일정을 소화했다. 오랜 시간을 이 곳에서 머무르지 않았지만 이 곳 저곳을 다니는 동안 평화로운 도시의 향기는 고스란히 온몸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배로 2시간을 달려 빡우동굴로 향했다. 이 곳 또한 4000여 불상을 봉안한 곳으로 누군가가 하나 둘씩 불상을 가져다 놓은 것이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라오스 국민들의 불교사랑이 엿보이는 또다른 장소였다.

라오스에서 가장 오래된 왓씨엥통은 '황금도시의사원'이라는 뜻으로 하나의 사원만 봐야 한다면 주저 없이 꼽는 곳이라고 한다. 유리 공예와 황금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대법전은 충분히 아름다웠으며, 아침에 탁발해 온 밥을 쪄 내 사시공양을 준비하는 승려의 모습은 또 한번 나 자신을 엄숙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3박 5일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여느 일정과 달리 라오스는 일정 내내 오롯한 감동을 주었다. 그것은 화려한 유적이나 거대한 사원에서 느끼는 감흥이 아니었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인 이곳의 불자들은 한명 한명이 작은 부처였다. 그들은 지금의 가난한 삶에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업의 과보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생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보내 준 그들이 오랫동안 가슴속에 라오스의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글
덕문 영축총림 율학승가대학원장

재가 계율의 보고寶庫 -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경전산책'이 신설되어 재가불자들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영축율원장 덕문스님의 연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 편집자 주 -

우바새계경은 인도의 담무참 스님이 4세기 중엽에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전해오다 1960년대 이후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으로 번역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재가불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육바라밀과 보살도 실천에 대하여 특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대승계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에 대해서는 사분율장을 비롯한 많은 율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으나 재가불자의 계율에 대한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가불자의 대승계율에 관한 가르침인 우바새계경이 여러 불자님들의 계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1 집회품集會品 - 기복과 작복

그때 그 가운데 장자의 아들인 선생善生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육사외도들이 중생들에게 말하기를 '이른 새벽에 여섯 방향에 예경하면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석帝釋에게 속한 동방의 땅에 공양하면 석제환인이 보호하고 도우며, 염라왕에 속한 남방의 땅에 공양하면 염라왕이 보호하고 도우며, 파루나婆樓那천신에게 속한 서방의 땅에 공양하면 파루나 천신이 보호하고 도우며, 구비라拘毘羅천신에게 속한 북방의 땅에 공양하면 구비라 천신이 보호하고 도우며, 화천火天에 속한 하방의 땅에 공양하면 화천이 보호하고 도우며, 풍천風天에 속한 상방에 공양하면 풍천이 또한 보호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이러한 육방이 있습니까?"

해설

선생이 당시 육사외도들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물은 인연으로 『우바새계경』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당시의 육사외도들은 이른 새벽에 육방에 예경하는 것으로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제석천왕이 속한 동방에 공양하면 석제환인이 도우며, 염라대왕·파루나천신·구비라천신·화천·풍천 등의 동·서·남·북·상·하방에 공양하면 이러한 천신들이 보호하고 돕기 때문에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부처님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내용의 신앙형태를 살펴보면 제석이나 염라왕 등의 특정대상을 정해 놓고 그 대상에 공양을 올리고 예경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바를 성취하는 기복신앙적인 성격을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불교를 제외한 상당수의 종교가 이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력을 세워서 복 짓는 일을 열심히 실천하고 바라밀을 성취해 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크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남자여! 나의 가르침에도 육방이 있으니 육바라밀이 그것이니라.

단바라밀檀波羅蜜이 동쪽이니 가장 먼저 지혜의 빛을 내는 인연이 되기 때문이다. 동쪽은 중생의 마음에 속하므로 중생이 보시바라밀에 공양하면 수명과 재산을 늘릴 수 있다.

시바라밀尸波羅蜜은 남쪽이고, 찬제바라밀羼提波羅蜜은 서쪽이고, 비리야바라밀毘梨耶波羅蜜은 북쪽이고, 선바라밀禪波羅蜜은 아래쪽이고,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은 위쪽이니 위쪽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위가 없기 때문이니 공양을 하면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다.

선남자여! 이 육방은 중생의 마음에 속하는 것이라 육사외도의 말과는 다르다."

해설

육사외도들은 특정한 대상을 정해 놓고 그 대상에 공양하고 수명과 재물을 비는 기도를 하지만 부처님은 보살심을 발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으로써 기복이 아닌 작복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연히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고 부탁하는 듯한 가르침이 아닌 스스로 처절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보살도를 완성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로 회향하는 작복을 권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 짓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살도 실천입니다.

"이러한 육방은 누가 공양할 수 있습니까?"

"선남자여! 오직 보살만이 공양할 수 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리를 얻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며 보리의 성품 性品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한다."

"세존이시여! 보리를 얻기 때문에 보살이라 한다면 아직 육방에 공양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보살이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방에 공양하는 일은 오직 보살도 실천을 발원한 보살만이 실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 성품을 깨달아 가는데 최상의 방법임을 믿고 실천해 가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집·멸·도 사제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으로써 참으로 무아無我임을 체득했다 해도 다시 회심아라한이 되어서 육바라밀이나 십바라밀을 실천해야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대승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발보리심품에서 반야바라밀품에 이르기까지 27개 품의 내용을 참고로 실천해 간다면 지계바라밀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바새계경을 공부하는 인연이 성불을 앞당기는 좋은 방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덕문스님
중봉성파스님을 은사로 통도사 득도
월운 강백스님에게 전강
철우 · 혜남율사스님에게 전계
사미계 수계산림 유나
현 단일계단 교수사 · 갈마사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계단위원회 위원

글. 사진
이병인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파리협약과 신 기후체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말이 있듯이 변하는 것만이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생해서는 안될 테러와 지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기후변화 회의가 열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 전체를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생각하며 생활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2월초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95개국이 참석하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렸습니다. 2주간의 첨예한 대립과 진통 끝에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라는 새 기후변화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다는 전제에서 자연을 개발하고, 자원을 남용하면서 산업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석탄과 석유 등을 이용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지구적 재난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 스스로의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뿐이라는 자각이 이미 1970년대 아폴로우주선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을 바라보듯이 지구 밖인 우주에서 바라보이는 지구는 달처럼 푸른 쟁반 같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7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표어 아래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어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원칙을 천명하고, 유엔 내에 환경전담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립하고,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환경정상회담(Earth Summit)이라 부르는 리우환경회의 등이 개최되어 지구를 지켜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의제 21'을 수립하는 등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1997년 12월 일본의 교토에서 열린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주요 온실가스이고,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감축하자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에게만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의무를 부여했고, 미국의 비준 거부 및 캐나다의 탈퇴, 일본과 러시아의 기간연장 불참 등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의 파리협정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후협정이라 부르는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도까지 제한하는데 노력하며,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지원하고,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처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118조 정도)를 지원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여 전 세계가 기후재앙을 막는데 동참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을 준비중이며,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대책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석탄을 이용한 화석발전 정책의 폐지와 전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에너지 관리계획과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산업계만으로는 반쪽자리 협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구에 사는 인류 모두가 동참되어야만 실질적인 효력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시점은 분명히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지구전체의 공존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서 각 개인이, 지역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지구전체가 함께 할 때라고 봅니다.

더불어 불교계에서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불교적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불교적 식사법인 발우공양의 뜻과 장점을 적극 되살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뉴욕타임스(NYT)는 기후대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생활습관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① 고기보다는 채소를 먹고, ② 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③ 적당히 구매하고, ④ 음식물을 버리지 말고, ⑤ 비행기보다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 ⑥ 연비가 좋은 차로 바꾸고, 두 번째 차를 사지 말고, ⑦ 적게 사고 적게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주창한 것이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연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육류로 인한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 세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적 식사법인 발우공양은 여러 면에서 친환경적인 식사법으로써 지구전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발우공양은 채식菜食이고, 소식小食이고, 무폐기식無廢棄食으로써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최상의 식사법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제안한 7가지 대책 중 3가지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돌 하나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불자로서 이제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하나하나 생활속에서 실천해가면, 그것이야말로 지구를 지켜 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병인 교수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공학박사,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영축환경위원회 위원 등 40여 환경문화관련 자문

글. 사진
김윤희 등불 편집실

의병의 고장,
의령의 대표 사찰

신덕산 수도사를 찾아가다

동지를 나흘 앞두고 찾아간 산사는 경남 의령군 용덕면 이목리에 위치한 수도사(주지. 덕운)이다.
분주한 일상일랑 떠나 온 그 자리에 두고 온 양, 용덕면에 들어서니 바쁠 것도, 힘들 것도 하나 없는 마음이다. 표표히 앉아 있는 집들이, 논밭이 그렇게 풍경이고 그림이니 정겨운 마음 밖에 그 어느 것도 끼어들지 않는다.

의령 읍내가 가까운 수도사는 명당에 자리한 게 분명하다.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명당에 수도사가 있다. 덕암지라는 저수지와 신덕산이라는 산 이름, 거기에 지명까지 용덕면이고 보면, 수도사는 모름지기 덕德의 성품을 지닌 사찰이 분명하다.
거기에 조금의 우스갯소리를 보태자면 주지스님의 법명까지 '덕운'이라 하여 일조를 한다.
그렇게 덕의 성품 따라 앉은 수도사로의 안내는 물과 사람, 산이 맡은 최적의 품신이다. 완만한 오르막, 위용 있는 산의 기운, 거기에 고풍을 간직한 누각 등이 산사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장면이다.
도량 건너편 주차장에서 바라다 보이는 도량의 전경이 비단 한 폭의 수채화다. 사시 예불에 임하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의 독경소리까지 가세를 한다. 신라 문무왕 2년이던 662년 원효스님에 의해 최초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수도사(주지. 덕운)는 의령의 사찰 가운데 유일하게 옛 절터를 그대로 존속시켜 오고 있는 도량이란다. 한두 번의 중창을 거쳐 1592년 임란을 거치며 모두 전소된 것을 유정

주지 덕운스님

스님에 의해 새롭게 중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전각들이 그 때 조성된 500년을 넘긴 흔적의 산물들이다.

실로 앉고 싶은 누각 만세루는 도량을 조망하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전각이다. 목조건물의 운치가 신덕산의 산세와 너무도 어울리는데 그 2층의 누각에 앉으면 덕암지도, 아랫마을 이목리도 그대로 한 눈에 조망된다. 열어제친 여닫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청풍이 객의 마음을 붙들고도 남는다.

누가 와도 차 한잔 기울일 수 있도록 꾸며진 다실이다. 그곳에서 차를 나누며 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니 부족할 것이 무엇이랴.

정오를 넘기고도 이어진 예불소리가 그치고 극락전을 나오는 주지스님과 눈 인사를 나누는데 뒤를 따라 법당을 나오는 불자들이 칠순, 팔순의 촌로들이다. 댓 명 남짓의 그들은 그 아랫마을을 지켜 온 토박이 신도들이며 수도사와 한생을 같이 한 주인들이 분명했다.

그런 노보살들이 이고지고 나른 공양물로 도량 또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이미 어르신들을 꼭 껴안고도 남음이다.

극락전의 예불이 끝났음에도 우측의 칠성각에서는 여전히 한 스님의 독경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알고 보니 원래 낙성법회 일자로 정해진 날이 그날인지라 칠성각 낙성법회를 기해 봉행되고 있는 기도라는 귀띔이다. 전각은 아직 개금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부임 2년 여 만에 극락전의 단청을 마쳤으며 도량 일대 정비와 신덕산의 언저리, 진입로를 정비하는 일, 퇴락한 칠성각을 새로 조성한 것이 덕운스님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불사란 사람의 힘과 보이지 않는 신장의 힘이라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것은 원력이 보태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모름지기 수도사 역시 역대 조사스님들의 창건정신과 전통을 이어 온 후대의 스님들, 그리고 절을 지킨 신도들의 기운이 더해져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문화재인데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지장탱과 사찰 우측으로 조성된 부도전이 유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극락전 앞 마당에 서 있는 3층석탑이 바로 신라시대 탑으로 등재돼 있어 불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점심공양을 뒤로 미루고 주지 덕운스님과 마주 앉았다.

"스님, 시작詩作 활동과 유유자적 사는 모습이 스님이었는데 이토록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셨네요."

"출가인은 자유로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전 출가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인연을 가급적 끊고 편하게 살고자. 그런데 세월을 거듭하다보니 자유로운 것은 틀리지 않는데 인연 따라 걸림 없이 멋들어지게 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저희 노스님(경봉대종사)의 삶처럼 불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모르는 것이라면 물을 줄 알아야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나 보다 나은 사람을 기용할 줄 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좋은 도량을 떠나는 날에도 원만한 불사를 하여 도량을 남겨주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는 소회를 밝힌다.

"수도사를 위해, 지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 요즘, 장구와 북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할 줄 모르니 배워서 필요할 때 신도님들과 지역민을 위해 들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수행자가 뭐 그런 잡기를 하느냐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신도들을 위한 일이고 불자들을 위해 소임을 살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불가를 대표하는 큰 명절에는 지역의 경로당, 면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등 가리지 않고 3백인분의 공양물을 지어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지요. 나흘 뒤의 동지에도 그럴 계획입니다. 공양간 앞 커다란 솥이 그 용도로 쓰일 겁니다."며 나눔의 덕담도 빼놓지 않는다.

물론 불사계획도 분명했다. 신덕산 위쪽으로는 원효대사가 100명의 수행자를 이끌고 수행을 했다는 병풍바위가 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신덕산 6백 고지에 탐방로를 내어 백련암이 있는 자굴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연결시켜 수행처와 산이 둘이 아닌 곳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들려준다.

수도사는 주변으로 차나무가 무성하다. 역대 주지스님 가운데 누군가 맘먹고 차밭을 조성해 놓았나 보다. 게다가 약초 선별에도 일가견이 있는 덕운스님인지라 수도사에 가면 차와 몸에 이로운 약초가 덤으로 주어진다는 사실도 새겨둘 작은 팁이다.

「등불」의 20년 애독자라는 종무소 자원봉사자는 10년 째 창원에서 출퇴근을 하며 수도사 살림을 돕고 있었다. 찾아간 기자에게도 그렇듯 '선물'이 주어진다. 20년 「등불」애독자라는 선물이.

(의령 수도사 : 055-574-2010)

글
이미영 통도유치원 원장

FOOD

행복 두배,
즐거움 두배~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신나는 체험활동

쫄깃쫄깃 절편으로 무엇을 할까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밀대로 절편을 납작하게 만들어보고 반짝반짝 별,
부릉부릉 자동차 모양을 찍어보았어요.
엄마 한입, 나 한입 입 안 가득 쫄깃함을 느껴보아요~

네모난 김에 시금치, 당근, 단무지 등 각각의 재료를 넣으면
무슨 맛일지 궁금해서 눈이 초롱초롱~
입 안 가득 군침이 가득~
평소 잘 먹지 않고 "시금치 싫어! 당근 싫어!"를 외치던 아이들도
꼭꼭 씹어 먹어보니, 아이 맛있어~
"시금치 좋아~ 당근도 좋아~"를 외쳤어요.

알록달록 단풍잎과 향기 가득한 국화꽃을 하나하나 붙여 예쁜 왕관을
만들어 보았어요. 가을향기가 물씬 나는 자연물을 정성스럽게 붙여 만든
왕관을 쓰고 왕자님, 공주님이 되어 보기도 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도 멋지게 왕관을 쓰고 사진 한 컷 남겨 보며
기분 좋아 웃어보아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글
원상스님 통도사 자연음식연구소장

"한 해의 살림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김장입니다"

원상스님(통도사 자연음식연구소장)의 해석이다. 김장은 해를 넘겨 치르지 않고 마치되, 그 내용은 해를 넘겨야 쓸모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장이란 본디 김치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한 해 먹을 것을 대량으로 갈무리하고 저장하는 노고를 모두 김장이라 이른다. 통도사에서 배추와 무 등속을 마련하여 김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공양의 기본이고, 나아가 사람살이와 수양의 토대가 될 것이다.

지난 11월 말, 주지스님을 비롯한 소임 맡은 스님들의 생각과 발길이 바빠졌다. 실무를 담당한 원상스님의 '김장 설계도'는 매우 복잡해졌으리라.

"아니에요. 이렇게 큰 살림의 김장을 기획해 본 일이 없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될 만한 일이었어요."

스님이 웃으신다. 말씀이 이어지는데.

"다 잘 되었어요. 절로 된 것이죠, 뭐. 모자라면 나타나고, 필요하면 생겼어요. 궁리하면 해결되었고."

대개 통도사를 들르는 신자들은 저 깊은 영축산 속살로 들어서는 일은 드물다. 일주문 지나 가람에서 예불하고 쉬어가기 때문이다. 암자들이 흩어져 있는 영축산 뒤란으로 들어서면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이 펼쳐진다. 영남 알프스의 그 높은 봉우리 사이로 마치 너끈히 천석을 지어 공양을 올릴만한 너른 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이 바로 통도사의 영양을 책임지는 농사터이고, 농감農監스님이 있어서 한 해 농사를 돌본다. 그 자리에 농막을 짓고 농사를 보는데, 그 자리가 곧 김장터가 되었다. 통도사에 주석하는 모든 스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노력을 보탠 건 물론이고, 신심 깊은 불자들의 손길이 더해졌다.

"저 산더미 같은 배추와 무 더미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웃음). 놀랍게도 소금 치고 절이고 뒤집고 양념하고 다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피를 입었다는 말은 이런 데 쓸 수 있는 듯하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통도사의 올해 김장 양은 배추 1만 2천 포기가 되었다. 이 김장은 농막에 저장되었다가 서릿발 날리는 겨울 땅에 묻혀 통도사의 수행 스님의 찬이 되고, 무시로 찾는 불자들의 소박한

공양의 핵심이 된다. 통도사 올해 김장은 원상스님의 조리법이 반영되었다. 특이하게도 스님은 버섯 달인 물과 찹쌀풀을 쑤어 쓴다.

"무, 다시마, 노루궁뎅이버섯, 가죽버섯, 팽이버섯 등을 끓여서 식혀 쓰면 감칠맛이 나요. 버섯에서는 구아닐산을 비롯한 다채로운 아미노산이 우러나오거든요."

젓갈 같은 아미노산 공급원을 쓰지 않는 사찰의 김장은 그래서 다른 궁리가 통해야 한다. 찹쌀풀을 쓰면 김치가 입에 붙는 질감을 주고, 익힘을 조절한다. 특별한 김치에는 스님은 연잎을 쓰는데, 이는 김치가 빨리 삭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다. 여염의 김장과 다른 사찰음식의 김장은 그렇게 특징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이루어진다.

김장을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치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아주 오래 전부터 '딤채'라고 부르는 낱말이 있어서 채소를 간장이나 소금 등속에 절여 겨울을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오군란(1882) 이후 청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다수의 중국인 채소 재배 농사꾼들이 조선에 들어왔고, 그들이 지금과 같은 배추를 널리 보급한 것이 큰 사건이 되었다. 원래 조선의 배추는 속이 꽉 찬 것이 아니어서 무를 중심으로 김장을 하였다고 한다. 중국 종자의 단단한 배추가 도입되면서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지금의 김장 모양이 만들어졌다. 물론 임진왜란 이후 들어온 고추가 18세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김장에 쓰이면서 더 오래, 아삭하고 시원한 김치의 저장을 가능하게 했다. 고추는 일종의 방부 효과가 있어서 김치가 삭는 것을 막아주었던 것이다.

"김장은 겨우내 공양의 힘이 될 것이고, 우리 음식의 뿌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큰 행사였어요. 모든 대중들과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상스님이 밝게 웃으며 던진 말이다. 3일에 걸친 '거대한 역사'였던 김장의 마무리와 함께 겨울이 영축산에도 깃들기 시작했다.

글
윤태환 한약사. 동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수석부회장

추운 겨울철 관절과 혈압에 좋은 '겨우살이'

지난 12월은 겨울임에도 비가 잦고 비교적 따뜻하게 지나갔으나 병신년 새해 일월은 아직 음력 을미년 세운이 남아 있어 본격 겨울 추위가 예상 되고, 날이 추워질수록 나이가 드신 분,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관절이 더욱 불편하게 되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이 더 높아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에 맞는 약재로써 참나무에서 겨울철 추위를 이기고 자라는 겨우살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방에서 겨우살이는 상기생桑寄生이라고 하여 오래된 뽕나무에 기생하여 자라는 것을 사용하여 왔지만, 지금은 상기생이 자랄 만한 오래된 고목 뽕나무가 없으므로, 대신하여 오랜 고목 참나무에서 자라는 겨우살이를 사용하며 한방에서는 곡기생槲寄生이라고 한다. 곡기생도 상기생과 거의 같은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우살이가 한약으로써 갖고 있는 효능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성질을 띠고서, 간신肝腎과 혈血을 보補하는 중요한 약재로써 풍습風濕을 없애고 근육 과 경락經絡을 풀어 주어 관절을 이롭게 하며, 근골筋骨을 강하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

또 보혈補血작용을 통하여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예방한다. 그 외에 산후에 젖이 잘 나오지 않거나, 자궁출혈, 부스럼, 태동 불안을 안태安胎시키는데도 사용한다.

현대약리 연구에 의하면 심혈관계에서 혈압을 내리는 효능, 관상동맥 이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암세포의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도한다는 보고가 되어 항암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두통, 어지러움, 식욕부진, 갈증이 올 수 있다.

차 만들기

① 겨우살이를 늦가을부터 초봄 사이에 채취하여 4~5㎝ 크기로 잘라서 깨끗하게 씻은 후 그늘에서 잘 말린 후 보관하여 두고 사용한다.

② 차로 달일 때는 겨우살이 : 물을 20g : 200cc 비율로 하여 약한 불로 서서히 달인다. 이때 지나치게 오래 달이면 차가 쓴 맛이 강하므로 맛을 보아 가면서 기호에 맞게 달인 후 겨우살이는 건져내고 달인 물은 냉장 보관하여 두고 수시로 데워 마신다.

③ 단 맛을 좋아 하면 꿀을 타서 마셔도 좋다.

통도사 www.tongdosa.or.kr

주지 임명

울산 화봉선원 대표 기탁스님

등불 영축소식 안내

이번 영축소식에서는 〈자비원소식〉과 〈통도사소식〉이 쉬게 됩니다. 자비원소식은 금번호에 싣지 못한 내용을 2월호에 게재하게 되며 통도사소식은 풍성한 사중의 소식들을 화보면으로 옮겨 싣게 되어 영축소식에서는 다루지 않았음을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 불자님 가정마다
불은佛恩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통도사 사부대중 일동 -

박물관 www.tongdomuseum.or.kr

기도법회안내 : 인등 / 연등기도 : 1월 23일(토요일), 오후 5시, 성보박물관 1층 중앙홀

문화자원봉사회 소식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에서는 전년도 12월 봉사자임원총회를 통해 남진석회장님의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첫 임원회의는 2016년 1월 5일(화)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개최합니다. 회장 및 신규임원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도사성보박물관의 꽃인 문화자원봉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문화자원봉사회를 이끌어 주신 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산 수덕사 괘불전 봉행 및 헌다례 공양

개산대재 영축문화대제 기간 중이던 지난 10월 18일 오후 1시 성보박물관에서 예산 수덕사 괘불전이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괘불전에는 방장 원명지종스님, 주지 향전영배스님을 비롯한 사중의 스님들과 말사스님들이 참석하여 괘불전을 축하했으며 통도사 선다회의 헌다례로 괘불전의 의미를 배가시켰습니다.

박물관 새해첫날 휴관 안내

새해첫날인 2016년 1월 1일(금)은 휴관합니다. 1월 2일(토)부터 정상적으로 개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
묘현수 통도사 기획주임

초짜 종무원의 사찰입문

나름 큰 기업에서 조직장의 일을 해왔던 나는, 어느 순간 부와 지위에 대한 욕심에 회의를 느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마음을 먹었다. 나로써는 그러한 모든 것을 뒤로했고 나름의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을 택했다.

그 자유로운 시간 동안 여러 사찰을 찾아 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각 지역의 불상과 불화들을 바라보며 석사시절 논문내용을 되짚어보기도 하였다.

어설프기는 하지만 내 논문은 감로탱 하단불과 민속화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었다. 이런 시절을 지내니 법명도 갖고 싶어졌다. 그래서 법명도 받았고 절하는 법도 배우게 됐다. 사람의 팔자라는 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다.

누군가 나에게 종교를 물으면 "우리 집은 불교집안이다."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내 종교는 불교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나는 이곳 통도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내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았을 뿐인데 그곳이 통도사가 되었다. 모르긴 해도 불교와 인연이 있었나 보다. 덕분에 불교 그리고 사찰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종무원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5명 중 가장 초짜였던 나는 다른 종무원들의 베테랑 같은 모습에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른 배워서 종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라도 받아보고자 열심히 보고 들었다.

종무소에는 참으로 다양한 전화가 걸려온다.

날이 흐리면 울적한 마음에 전화를 거는 신도님, 어디서 화가 났는지 다짜고짜 화만 내는 신도님, 다른 큰 사찰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묻는 신도님 등등…

초짜 종무원인 나에게는 이러한 전화보다도 통도사의 세부적인 일정이나 법회 내용 등을 묻는 문의에 응대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그러던 중 어떤 젊은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사실 스님과 면담을 하고 싶다는 말로 시작이 되었는데 당장 스님과 상담이 어렵다고 했더니 갑자기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 놓았다. 내용인 즉, '통도사 근처에서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갔는데 어린 아들이 환경에 전혀 적응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왔다. 기업에서 일하면서 20~40대들의 사회 적응에 대한 상담요청은 많이 받아봤지만, 7살짜리 아이에 대한 상담요청은 처음 이었던 터라 순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무려 6명의 조카를 거느려봤던 실력으로 젊은 엄마의 마음을 달랬고 결국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기분 좋게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난 결혼도 한번 못해봤다는거… 초짜로써 대단하지 않은가?

입사하면서 시작한 신규 홈페이지 구축은 내가 통도사를 선택하게끔 만들었던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하루하루 홍수같이 밀려오는 업무로 신규 홈페이지 구축에 집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 동안 수년을 쌓아 온 경력이 기반이 되어줬고 차근차근 홀로 버티기를 시작하였다.

신규 홈페이지는 또 하나의 공부였다. 생각지도 못했던 통도사의 많은 정보를 자연스레 공부할 수 있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열심히 고민하게 해 주었다.

아쉬운 것은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설계하고 내용을 채워나가는데 있어 수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홈페이지가 그럴싸하게 보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업체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경내 가이드였다. 모양새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경내 가이드 모양새에 짜증을 부리고 있던 중, 사회국장 스님께서 삼각 명패를 후원에 갖다 놓으라 하셨다. 순간 난… 스트레스 만빵, 짜증이 더욱 극에 다다랐다.

'아휴~ 경내 가이드에 후원이 빠졌네!!!' '도대체 후원은 어딘거야?', '기존 홈페이지에는 후원이 없었는데… 새로 지은 건가?' 난 사회국장 스님의 삼각명패가 문제가 아니라 경내 가이드에 후원이 빠져있음을 한탄하고 있었다.

순간, 옆에 있는 종무원 왈, '후원이 공양간이데이~!' 이 짧은 순간, 홈페이지 좀 만들어봤다는 나의 오만함을 반성하며 다시금 겸손자세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 그렇다.

나는 여전히 초짜 종무원이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 알아가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다. 그래도 그 동안의 나의 사회경력에 통도사에서 지내는 시간을 합친다면, 나름 나 자신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언제가 돼야 베테랑 같은 통도사 종무원의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소박한 꿈을 꿔본다.

통도사가 21세기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후대 자손대대로 회자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크고 깊은 일을 하는 그런 유능한 종무원이 되는 꿈. 이런 꿈을 꾸며 살짝 행복감에 젖어본다.

월간 등불,
아름다운 법보시

월간 등불은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자랑입니다.

월간 등불을 법보시하는 일은
법공양의 실천입니다.

월간 등불을 후원하는 마음은
불법을 홍포하는 문서포교의 불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월간 '등불' 이 있습니다.

이달의 법보시 동참자

주지스님, 도문스님, 정안스님, 선본스님, 도안스님
무위스님(양산포교당), 정진스님, 성법스님, 부산 원오사
서일스님, 선다회 학생회, 선다회 사범회, 적멸도량회
통도사 포교사회, 불기청광회 회원 일동, 통도사 수련동문회,
염불공덕회, 템플봉사반, 사리탑봉사반, 바라밀다봉사회,
김현철, 최치민, 임성문, 김원일, 박중현, 최서윤(을미생), 박태영
김태윤, 일본순례단, 최서윤

매월 2만원 법보시 동참 바랍니다.(동참자 성함 게재해 드립니다)

月刊 등불

'법공양 마당'

장소 : 불이문, 산중다원

부처님의 말씀과 적멸보궁 통도사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 등불
이 '법공양 마당' 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경내에 마련된 등불 법공양 마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폭넓게 읽히는 월간 사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통도사 신도님들께 매월 배달되는 영축총림의 사보입니다. 월간 「등불」 편집실에서는 10년 이상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고 발행해 온 소식지의 1년 정기 구독료를 5천원 상향 조정하여 2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발송료와 제작비 등 많은 부분 물가 인상이 있어 부득이 내린 결정이오니,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독자 여러분들과 불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월간 「등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선원에 입방 희망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통도사 보살선원이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나은 정진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방자격 : 70세이하(여)
※70세 이상은 선원장 스님과 면담 후 결정
정진시간 : 하루 7시간
방 부 비 : 대실 90만원, 출퇴근 40만원(1인 1실 규정)
연 락 처 : 055-381-0977 보살선원

사람을 대하는 일, 어느 한 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무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 · 식 · 주의 범주 내에서도,
가용의 사물에서도 불변의 이치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이란 하는 만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권의 불서를 만드는 일도 그랬습니다.
공들여 기획에 임했고, 불사를 하듯
취재를 했으며 마음을 다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편집에 임합니다.
그럼에도 모두의 기대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천인이 다르고 만인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감동의 대목은 불과 몇 줄에 불과하며
마음을 붙잡는 것은 시공의 합일점이
활자와 맞아떨어지는 어느 한 순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임하던 아주 낮은
자세일 때, 그 아래로 향하던 관점에서 사람을,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것, 관용의 겉옷 입어
화장으로 장엄할 것입니다.

지금, 도량에는 화엄의 세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소식 기다리고 있을
당신께 드립니다.
"마음으로 보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비로자나 꽃 피어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 간
「등불」에 따뜻한 격려와 독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 더 아름다운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회원 구독료 안내

1년 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20만원으로 평생 등불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안내 (예금주 : 통도사)

국민은행 666-01-0060-891
농　　협 813015-51-082016
신한은행 140-000-925706

우편접수

50501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 등불 편집실 앞 / 문의 : ☎ 055) 384-8380

※ 주소이전, 송금 온라인 등으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에는 겉봉투에 표기된 성명으로 해주십시오.
※ 우편물 배달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혹, 이사를 가시면 연락을 주시고 성금과 구독료 납부에 이상이 있으면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부처님께서는 법보시를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이나 군부대, 교도소, 학교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한 곳으로 영축총림 통도사가 발행하는 '등불' 보내기에 동참합시다.
※ 은행 입금분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혹, 누락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등불' 은 등불가족 여러분들의 투고로 만들어지는 월간 소식지 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편집실 이야기

월간 등불은 34여 년의 전통을 지닌 영축총림 통도사의 사보寺報입니다.
월간 등불은 불자님들과 여러 독자님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발행되는 불지종가를 대변하는 소식지입니다.
등불 가족 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맑고 아름다운 등불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등불 가족 여러분의 참여와 독려를 바랍니다.

참여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1년 연장)
김진백, 엄영주, 경남고속, 정인숙, 김인숙, 김석규, 김기삼, 임균성
양해숙, 이순연, 신명숙, 황인구, 김연희

새로운 등불가족 되심을 축하드립니다(1년 신규)
김재혁, 백용락

함께 하는 마음이 등불을 살찌웁니다(평생 회원)
양해숙

영 축 총 림 통 도 사

보광선원 신축불사

영축총림의 보광선원은 통도사의 대표적 수행처입니다
그러나 수 백년을 지켜온 보광전 당우는 낡고 퇴락하였고 보궁기도와 법회로 인하여 정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도사는 방장 원명지종대종사의 원력과 사중의 뜻을 모아 정진에 진력할 수 있는 선원 건립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를 뽑는 선불장 불사에 동참하시어 총림의 당간을 높이 세우고 선풍을 일으키는 뜻깊은 일에 수희 동참 바랍니다.

불사문의

회계실 TEL. 055-382-7187, 종무소 TEL. 055-382-7182
화엄전 TEL. 055-381-1288 / FAX. 055-372-7010

동참 계좌번호

우체국 611434-01-002199(예금주 : 통도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합장

월간 등불. 2016년 1월 6일 발행 (통권410호) | 발행처.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전화 055) 384-8380 팩스 055) 382-7196